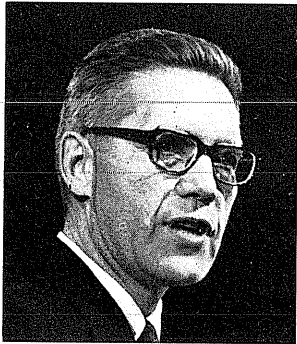




성도의 벗 2
1973





영감의 메시지

브루스 알 매콩키
십이사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가 계시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이로써 이 세상에서의 생활과 영생을 통하여 화평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물문경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모사이야서 3장 17절)

"보라 그리스도가 심판하심에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며 어려서 죽은 유아는 벌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겸손하여 작은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인한 구원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 할진대, 스스로 저들 영혼의 저주의 잔을 마시리로다." (모사이야서 3장 18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선지자들이 또 다시 확신과 권세로서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하여 계시를 받도록 새로운 부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옛 선지자들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위대한 회복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하늘로 부터 자신을 들어내셨습니다. 신권과 열쇠는 또 다시 살아 있는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역사되었던 것과 똑같은 계시와 시현과 기적과 온갖 은사는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왕이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또 다시 역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망한 교회의 교역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도록 권고하며 주안에서 온전하도록 권하며 개인의 오만과 온갖 불경한 것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과 다펶 영원한 세상에서 화평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순서

| | | |
|-------------|-----------|--------------------------|
| | 1 | 이달의 성도의 벗 |
| 제임스 알 클라크 | 2 | 성지 |
|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 | 6 | 성지의 장래 |
| 엘딘 릭스 | 15 | 유다는 귀환한다 |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17 | 선생님 |
| 제임스 에이 컬러모어 | 18 | 개인이 갖는 간증의 중요성 |
| 아덴 부라우어 | 21 | 비블 만드는 기계 |
| 비버리 존스톤 | 25 | 종이 인형 |
| 마벨 존스 개봇 | 27 | 모로나이 |
| | 29 | 정책 프로그램, 교회 뉴스 |
| 밀톤 알 헌터 | 30 | 선교 사업의 기적 |
| 스펜서 더블류 킴볼 | 33 | 교통의 통로를 확고히 |
| 엔 엘돈 태너 | 36 | "비판을 받지아니 하려거든 비판 하지 말라" |
| 레온 알 하트슨 | 40 | 히버 제이 그랜트: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 |
| 박 재암 | 46 | 선교부장단 메시지 |
| | | 지방소식 |

이달의 표지: 감람산에서 본 예루살렘을 표지로 실었다. 도 일 엘 그린 촬영. 하단의 사진은 로렐 지 콜이 찍었다. 유대 노인, 유대 소녀, 산상수훈이 주어질 곳, 슬픔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3년 2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84호
 편집겸 발행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우체국 광화문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오랫

1973년 2월호

제9권 제2호

- 대관장단
해롤드 비리
앤 엘튼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이 힝크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매콩키

정가: 1권 100 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800 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이달의 성도의 벗: 우리는 이 달 성도의 벗에 성지와 유대인의 귀향에 관한 기사를 세 편이나 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구세주의 재림 이전에 있는 중요한 징조의 하나로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저들의 옛집으로 돌아 오는 징조를 들 수 있다. 최근 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구세주가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지”라는 책을 빌어 이 시대의 예언자 중의 한 분이었던 대관장단의 제임스 알 클라크 형제님께서 성지로 집합하는 유대인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며, “성지의 장래”라는 저서를 통하여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형제는 예언의 성취에 관한 사건의 세세한 전말을 설명해 주고 있다. 루드로우 박사는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대학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얻으신 분이다. 현재 이 분은 교회 공보부 교육자재 국장을 맡아 일하고 계시며 온 세계 교회에서 쓰이는 교육 자재 및 공과 교재가 이 분의 손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유다는 반드시 돌아옴”이라는 책을 쓰신 엘딘 릭스 형제는 유대인들과의 흥미 진진한 접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유대인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도 및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하여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예언에 대한 반응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도의 벗의 지면을 빌어 성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기사를 계속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

| | | | | | | |
|----------|----------|----------|----------|----------|----------|----------|
| 2 | | | | | | |
| 日 SUN | 月 MON | 火 TUE | 水 WED | 木 THU | 金 FRI | 土 SAT |
| | |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 | |

성지

대관장단의 말씀

제임스 알 클라크



1973년 2월호

회복의 주요 골자는 바로 흠어진 아브라함의 후손의 집합이요 이들의 성지 회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현대를 사는 이스라엘의 무리인 말일성도들은 1854년 농지와 가옥을 빼앗긴 채 고향에서 쫓겨났으며 당시 교회의 관리권을 맡았던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를 근대와 고대의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라고 풀이하였으며 여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문경에 이미 소개된 예언의 음성은 말일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나라의 자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모르디카이를 박해하던 악마의 권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함께 동행하기로 서로 동의하지 않고서는 둘이 한 길을 걷지 못하는 법이다. 여기서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야곱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다. 약속의 자녀가 피에 굶주린 자의 곁에서 멀리 떨어져 피해 나가는 일은 참으로 현명한 처사였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조의 자녀라도 자기들을 해치려는 자객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는 멀리 피해 있지 않았던가.”①

이사야 11:11 참조

회복이 있기 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모로나이는 1823년 요셉 스미스를 방문했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요엘의 다음과 같은 말씀도 인용하였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요엘 2:32)

모로나이의 방문이 있었던 때로부터 십년이 지나고 나서, 그

러니까 교회가 조직된 삼년 후에 요셉 스미스는 계시를 받아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경고의 편지를 썼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분이 두 번째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리시기로 정하신 때가 이르렀으니, 이들 그의 백성이라 함은 앗스루와 애굽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요, 파드로스와 구시와 엘람과 시나와 하마스과 바다의 섬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니 이들로써 이방인들을 온전히 데려 오려 하심이요 저들의 죄가 씻겨진 후에 들어 주시리라고 저들과 나는 성약을 이루시려 하심이라.” (로마 11:25, 로마 11:27, 이사야 11, 로마 11:25, 26, 27, 예레미야 31:31, 32, 33 참조)

이 성약은 이스라엘의 가문이나 유대의 어느 가문에게도 성취



되어진 일이 없었다. 그 이유는 두 지파가 함께 성약에 동의해야 했던 때문이며 두 지파가 동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성약도 맺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가 옛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유다가 예루살렘을 구하며… (요엘 2 : 32, 이사야 26 : 20, 21, 예레미야 31 : 12, 시편 1 : 5, 에스겔 34 : 11, 12, 13 참조) 이는 바로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을 돌보며 어둡고 황량한 날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곳으로부터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올 것이라는 간증인 것이다. ……”②

“세상의 네 모퉁이로부터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열쇠는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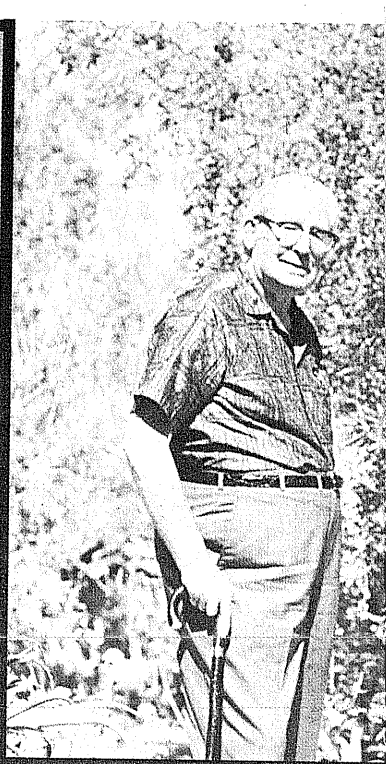
선지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율법자였던 모세에 의하여 모세가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신전에 나타났을 때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졌다.

1840년 4월 6일 대관장단은 올슨 하이드가 팔레스타인에 선교사로 임명되는 임명장을 전했다. 그는 런던, 암스텔담, 콘스탄티노블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유대의 장로와 율법사와 제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라”는 지시를 함께 받았다. 올슨 하이드의 사명은 완수되었으며 성지는 헌납되었다. 1843년 4월 6일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는 반드시 돌아오며, 예루살렘과

신전은 다시 건축될 것이다. 신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며 사해의 물은 아물 것이다. 물론 성의 담과 신전등을 다시 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인자가 다시 방문하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으며……”③

그후 두달이 지난 1843년 6월 11일에 많은 성도들이 나부 신전에 모였으며 그때에 선지자는 마태복음 23 : 27 을 퍼서 질문에 답하셨다.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어느 시기에 집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주의 전을 짓는 주요 목적은



모로나이 천사가 성지에 관한 예언을 인용했다.

엔 엘튼 태너 부대관장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곳에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의 전의 울레와 주의 왕국의 영광을 계시하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식과 원리 가운데는 반드시 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곳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④

요셉 스미스가 돌아가신 후 대관장단의 열쇠를 가지셨던 브리검 영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영국에 있는 장로와 성도들에게 전

하는 안부 편지를 윌포드 우드럽 편에 전하였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러한 귀절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진 아브라함의 혈육인 이스라엘이 집합할 때까지 이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에 관하여 주님의 사도들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시온은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은 재건될 것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영광으

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⑤
 몰몬들이 서부로 이주를 끝낸 1849년 대관장단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의 족속과 에브라임의 잔류민이 이 세상의 네 귀퉁이에서 저들의 상속의 땅으로 집합하는 것은 시온을 세우고 마지막에 온 땅이 영광으로 가득차게 하려 함이라”⑥

대관장단이 1851년 4월에 성도들에게 전한 다섯 번째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은 이미 시작되

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옛 상속의 터를 받으며 성지는 재건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태는 메시아의 강림이 목전에 이르렀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⑦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1884년에 터어키에 선교부를 세웠다. 1889년 9월 22일에는 안탑에서 아랍계 인으로서 첫 번째 사람이 침례를 받고 개종해 왔다. 1897년에 윌포드 우드럽 형제는 터어키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글을 그의 보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어 보냈다.

“.....불경한 태도로 주의 오시는 날에 관하여 논하지 마시오. 이미 정하신 때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시로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한 시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준비를 끝내기 전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때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주가 오시는 징조는 이미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큰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말일의 과업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시온은 온전한 모습으로 재건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손으로 다시 지어져야 합니다. 열 지파는 북에서 돌아와야 하고 이스라엘의 지파인 아메리칸 인디안은 교회에 들어와 주님의 사업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이스라엘의 지파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주를 맞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저들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⑧

1917년 11월 2일 발포어 선언

을 시도했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촌 건설은 달성이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1921년, 아랍과 이스라엘이 아직도 영토권을 놓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해 4월 연차 대회에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지상에 다시 회복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과 하나님의 예언자의 지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성지를 방문하고 그 땅을 유대인들이 돌아갈 땅으로 헌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말일성도로서 이 백성들을 대적하여 죄스러운 일을 범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⑨

1959년 3월 2일 대관장단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전하고자 온갖 노력을 시도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편지를 스테이크 부장과 스테이크 선교부장 모두에게 전하였다. 그 서한에는 상당 수의 유대인이 거주하는 도시에서의 스테이크 선교부의 프로그램을 촉진할 것이 아울러 언급되어 있었다. 이 서한에 언급된 몇 가지 지시 사항은 시기 적절한 결론이었다.

“우리는 스테이크 선교사와 스테이크 내의 다른 구룹을 권고하여 “친 유대계나 반 유대계나”하는 과격한 견해와 관련되는 일체의 움직임에 삼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다른 어느 누구 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친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주적인 형제애

를 바탕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어떤 자녀를 대하던가 편견이나 반감 같은 것을 없애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편견에 편승하여 이런 성격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유익한 일 보다는 오히려 오해와 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저들이 듣겠다는 자세를 갖추며 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교사들이 예언의 성취의 때를 미리 정한다던가 하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우리는 계시를 받으며 예언을 믿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의 시기는 오직 주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의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의 때를 대비하여 모든 사람이 준비하도록 가르치고 그 나머지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도록 가르쳐야 하겠습니다.”⑩

이와같이 우리는 이 교회의 대관장단이 근 백 오십 년을 두고 흠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합과 성지의 회복의 교리를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㉓

주:

- ① 교회 정사 제7권 478—479페이지
- ② 전계서 제 1권 313, 315 페이지
- ③ 전계서 제5권 337페이지
- ④ 전계서 제5권 423페이지
- ⑤ 마티아스 에프 카울리저 윌포드 우드럽(부크레프트 출판 1965) 231—32페이지
- ⑥ 밀레니얼 스타 제11권 231페이지
- ⑦ 전계서 제13권 209페이지
- ⑧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
- ⑨ 이라지 제24권(1921년 6월초) 747페이지
- ⑩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

성지의 장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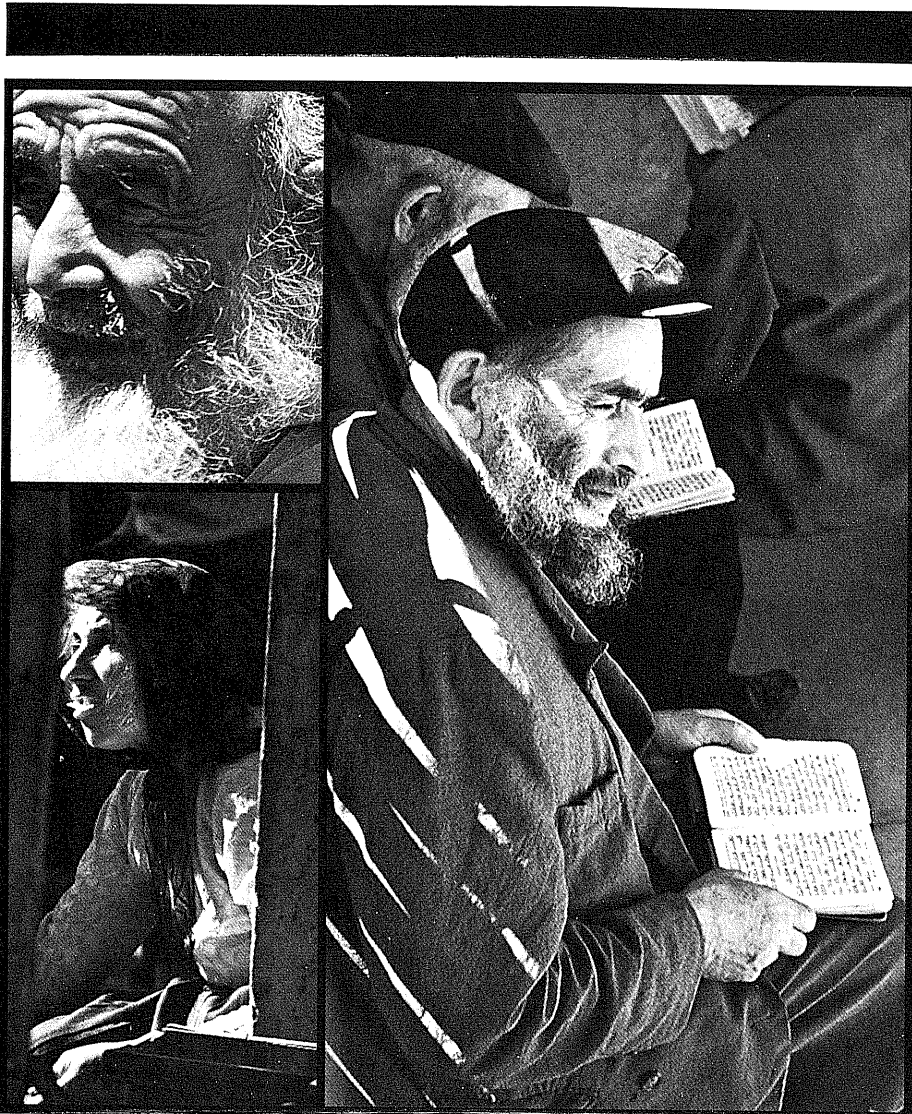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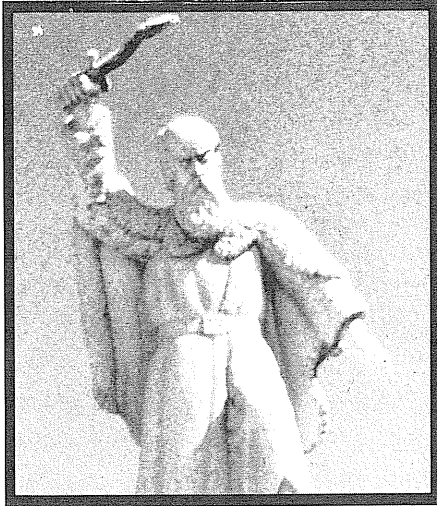
만 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차점이라는 비극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성지는 늘 중대한 의미를 갖는 땅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장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오직 예언의 영에 의하여 이 땅의 장래의 운명이 설명되며 이러한 거룩한 영의 은사는 참 교회의 징표로 남을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성지의 장래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이 알고 있으며 또한 옛 선지자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영감으로 받은 인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다.

성지의 장래는 이스라엘의 가문의 장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유다의 후손들의 장래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말일에 있어서의 유다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이 지역의 장래를 점치는 척도가 되어질 것이다. 이 기사에서 본인은 이러한 열 네 개의 예언을 취급하고자 한다. 과연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였다 :

주님의 말씀 중에 ; "... 두 세





증인의 말 마다 확정되리라” (고후 13:1)고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둘 이상의 예언이 들어나 있는 것만을 주제로 삼아 다루게 될 것이다.

아울러 예언은 말일의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와같이 우리가 다룰 주제가 포함하는 사항으로는 (1) 바빌론의 강압 이후에 살았던 구약의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 (2)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 인용하신 경전의 말씀으로서 장차 이를 일이라고 하신 사항 (3)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에게 전해진 예언과 기타 말씀의 자료.

1. 지상에 다시 오는 선지자 엘리야.

바빌론의 강압 이후에 살았던 말라기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말라기 4:5-6)

부활하신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 천사 모로나이는 1823년 9월 21일 선지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후 주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다시 1830년 8월에 요셉 스미스에게 전하였음이 교리와 성약 27편 9절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증인의 입으로 전달된 바, 선지자 엘리야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예언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기록한 바와 같이 1836년 4월 3일, 다음과 같은 시현이 있었을 때 이루어졌다.

“.....다른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시현이 갑자기 우리에게 열리더라.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예언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서 계심이라. 또 이르시되,

“보라, 진실로 그 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고 증거한 그 때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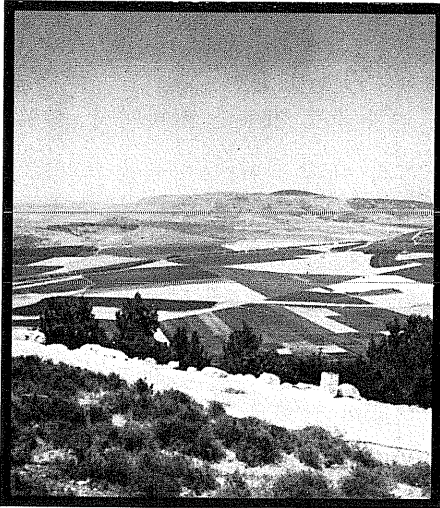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리라.” (교성 110:13-16)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믿고 있지만 흥미로운 일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 뿐이라는 사실이다.

정통적인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저들의 만찬 의식 중에 빈 걸상을 내놓고 그것을 엘리야의 것으로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 성지에서 큰 잔치를 열고 빈 걸상을 내놓고 엘리야를 기다리던 그 1836년에 엘리야가 왔으며 유대인들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를 찾아 커틀랜드 신전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유다의 후손이 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모이다.

마지막 전쟁터였던 아마겟돈이 있는 제즈릴 평원



1823년 9월 21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모로나이가 나타났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초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상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사야 11:12)

스가랴가 집합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을 주의해 보기로 하자: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스가랴 2:11-12)

순교를 당하기 바로 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고 이러한 일이 주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유다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과 신전은 재건될 것입니다. 물이 신전 밑에서 솟으며 사해의 물이 마를 것입니다. 성지의 외곽 성을 짓는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은 인자가 다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교회 역사 정사 제 5권 337페이지)

1841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인의 귀환을 위하여 성지를 헌납하도록 사도 올슨 하이드 장로를 성지로 보냈다. 그때의 헌납 기도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이 땅을 당신께 헌납하며 성별합니다. 이는 거룩한 예언자의 예언의 뜻에 좇아 흠어진 유다의 후손들을 집합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들을 이 땅에 모을 수 있도록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올 때에 구름이 물러오듯 하게 하시며 비둘기가 바람을 타고 오듯 하여 주시옵소서. 큰 배가 저들을 실어 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왕이 저들의 양부가 되어 저들의 얼굴에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도록 하시옵소서.”(교회 역사 정사 제4권 456-7 페이지)

올슨 장로가 이 헌납기도를 드렸을 때에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가 5,000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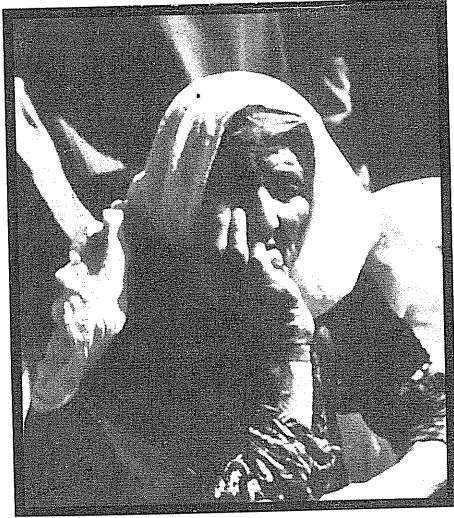
넘지 않았다. 오늘날 그곳에는 약 2,250,000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은 이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100여 나라에서—온 것이며 바로 예언의 성취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3. 유다의 후손이 열방의 금과 은을 써서 땅을 되찾다.

스가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 보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스가랴 14:14)

이와같은 내용의 말씀을 근대의 예언자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께서 하셨다; “...부유한 유대인들이 저들의 재물을 써서 흠어진 유다의 자손들을 모으며 예루살렘의 옛 조상의 거주지를 사들이고 성지와 신전을 재건하도록 부름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밀레니얼 스타지 41권 244페이지)

1967년, 당시의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레비 에쉬콜이 미국 기자와 면담을 가졌다. 그때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약 1천만불의 성금을 받았노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1천 5백만불이 서독으로부터 거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로 금과 은이 실지 회복 및 재건에 쓰일 것이라는 예언은 성취된 것이며 아직도 이에



언은 계속하여 성취되고 있다.

4. 예루살렘 땅은 옥토가 됨.

말일에 예루살렘 땅의 형편에 관한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에스겔 36:34-36)

근대 경전에 보면;

“그러나 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내가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들이 되며 기름진 옥토는 산림

으로 화할 것을 인간들에게 보이라.”(나이 27:28)

올슨 하이드는 예루살렘에서의 헌납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오 주여 그러하오니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 하옵나이다. 이 땅의 황량함과 메마른 것을 없애 주시옵고 생명의 맑은 샘이 이 메마른 땅에서 샘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넝쿨과 감람 나무가 무성하며 무화과가 꽃피어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그 유산을 받을 합당한 자들의 소유가 되었을 때 비옥한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은혜를 입은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탕아들을 먹이기에 풍족한 식물을 거두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구름이 단비를 내려 풍요를 거두도록 하시며 들이 풍성함을 미소로 말하게 하시옵소서. 가축과 짐승이 온 들과 산에 수없이 번성하게 하시옵소서...”(교회 정사 제4권 457페이지)

최근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은 예언의 성취를 입증하듯 정원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5. 유다의 후손들은 옛 박해자의 공격을 받으나 보호됨.

이 일에 관한 스가랴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자;

“그 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갈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췌불 갈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스가랴 12:6, 9)

니파이삼서에 보면 증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서 이 사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으니, 구세주께서 말일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보라 저들이 다 함께 하여 너를 대적하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대적하는 자는 너로 인하여 패망하리로다;

“너를 칠 목적으로 만든 무기가 유용하지 못할 것이요, 일어나 나를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 당하리니, 이는 주의 종된 자들의 기업이요 저들의 의로움이 나로 말미암음이라. 주가 이르시노라.”(니삼 22:15, 17, 이사야 54:15, 17의 말씀을 구세주께서 인용하신 것)

1967년 6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옛 땅덩이 보다 세배가 넘는

① 더블류 크레온 스카우슨. 전 솔트레이크시 경국장. 교회 회원 작가.

땅을 전쟁으로 쳐서 얻었을 때에 상황을 구태여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그때 땅의 면적은 20,720km²에서 67,390km²로 늘어났다. 더블류 크레온 스카우슨은 중동 전쟁을 주제로 쓴 책자의 표지를 “놀라운 승리”란 말로 그 상황을 설명하였다.

어떤 고위 정부 관리는 그것이 “즉각적인 승리”에 가까운 것이라 하였다.

6.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다스림.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스가랴 12:6)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스가랴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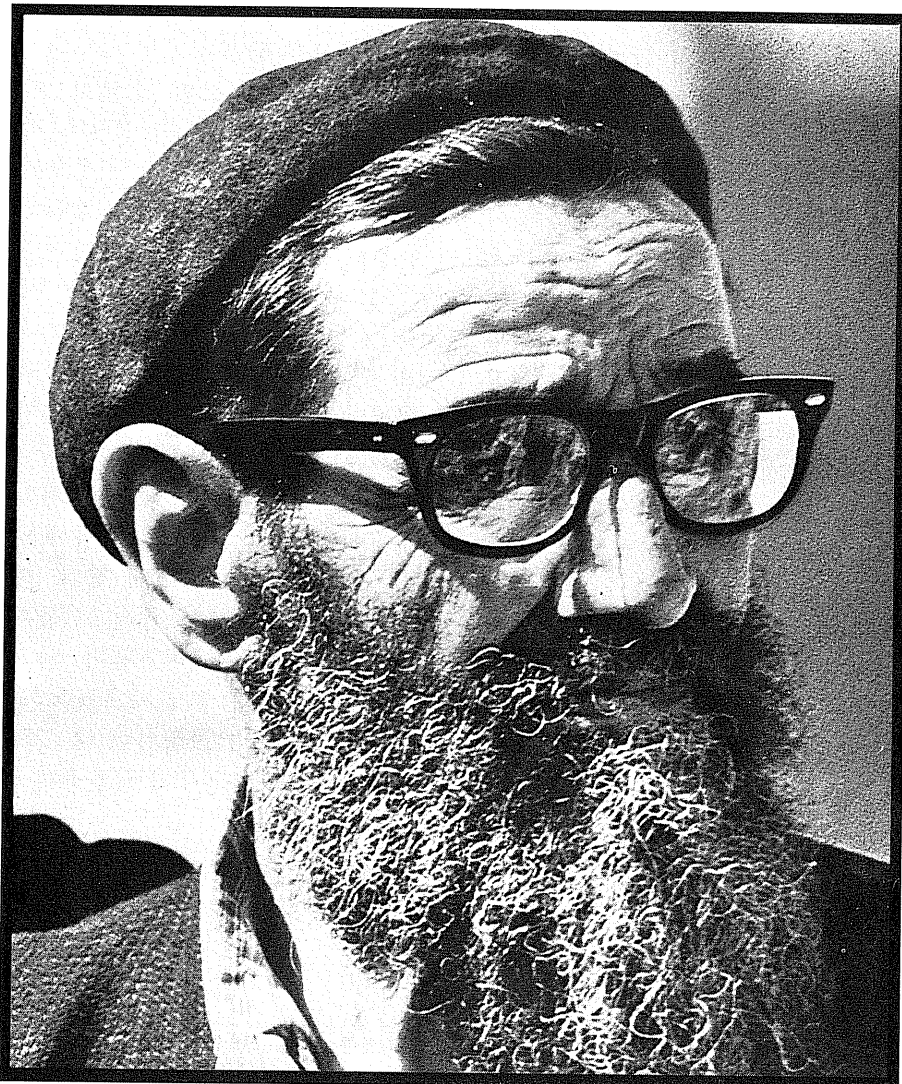
거의 1900년을 두고 고식적인 정통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도를 “내년에는 예루살렘을”이라는 간구말로 끝마쳤다. 그리고 1967년에 비로서 1900년간의 열망이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가 저들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그 땅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 여러 나라와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자.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갖지 못했던 1848-49년에만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그 후로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겼다. 이 일을 설명하는 데이비드 벤-구리온^①의 글을 살펴 보자;

“전쟁의 격랑 속에서……우리는 텔아비브에 정부를 두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의 수도를 가졌었고 앞으로 갖게 될 것이니, 영원한 예루살렘이 있을 뿐입니다.”(본향에 온 유대인, 342-43 페이지)

이와같이 비록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인은 “우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 할 것이다.

① 벤 구리온 데이비드 (1886)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7.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복음이 저들에게 가르쳐 질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 : 14)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시며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후에 때가 이르러 나의 온전한 복음이 저들에게 전파 되리니”

“그때야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간구할 것이요, (니삼 20 : 30—31)

이 일에 관하여 월포드 우드럽은 1855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방인이 복음을 거부하면 곧 복음은 저들에게서 취하여져 이스라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래도록 수난을 참아온 이스라엘의 옛 성읍인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며 처음 보다는 더욱 화려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하고 성신의 은사로 충만한 자를 저들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금 일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토론 제2권 200페이지)

그러므로 말일성도는 이스라엘 땅에 대 선교부가 조직된다고 하

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두 가지 중대한 이유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①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② 이스라엘에 포교 금지법이 내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이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백성들에게 전파될 때가 이를 것이다.

8. 예루살렘에 새로운 신전이 세워질.

스가랴 8 : 9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찌어다”(스가랴 8 : 9)

신전에 관하여는 에스겔 40장과 48장에도 언급되어 있다. 복음 토론 제19권 19—29 페이지에 올슨 프렛의 견해와 교리와 성약 124장 36—37 절에 신전에 관한 말씀이 실려 있다.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꼭 재건되어야 합니다. 신전은 꼭 다시 지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언자를 통하여 제시되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밀레니얼 스타 제52권 (1890년 10월 6일) 740페이지)

또한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 세상의 어느 시대 이거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집합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주의 의식을 계시하실 수 있는 주의 집을 지어 드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정사 제5권 423 페이지)

수많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제삼의 신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몇년 전에 이 일에 관련된 문서가 중동에서 발견되었다. 히브리 대학의 이가엘 야딘 박사가 현재 이 문서를 번역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

“이 문서에 있어서 놀라운 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문서의 전문이 하나님의 일인칭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 이외의 모든 사해로부터의 문서는 현재의 성경의 복사거나 성경 요약이거나 쿰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현존하는 성경의 일부가 아니면서 성서의 일부인 문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뉴우스 스타 제7호, 미 동양 연구학교지 1967년 11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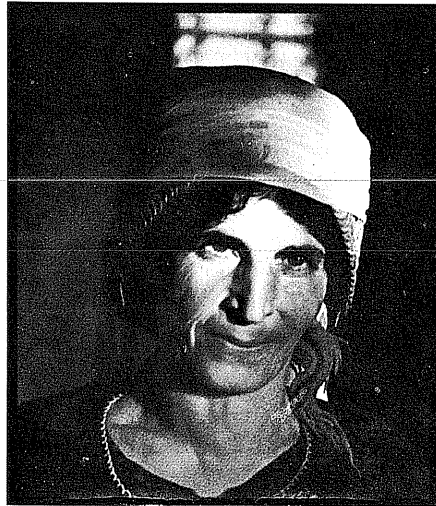
도대체 그 문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야딘 박사는 그것이 대 신전의 계획서라고 말하며 신전 내부의 새로운 모습을 설명한다고 전한다; 내부에는 종전처럼 두 개의 정방형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이 있다고 한다. 가운데 방과 외부의 방에는 한면 세 개씩 모두 문이 열 두개가 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문의 이름은 각각 열 두 지파의 이름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야딘 박사는 부언한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 심장합니다. 전 문서의 내용이 쿨란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봉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집합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역시 신약의 열 두 지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전계서)

올슨 프랫은 말일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신전에 관하여 또 다른 의미 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예루살렘에 참 메시지를 믿는 사람에게 의하여 신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신전의 건축 구조는 현재의 신전과는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보좌가 마련될 것이며 바로 그곳에 그 분이 원하실 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가문을 다스리실 것입니다.”(복음토론 제19권 20페이지)

9. 다윗 이름의 새 지도자(옛 다윗 왕의 후손)가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됨.



에스겔도 이에 관하여 예언하였거니와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스가랴에도 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순교 당하기 불과 삼개월 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일에 다윗 왕의 보좌가 다윗에게서 박탈되어 그의 후손 중에서 나온 다윗이라는 자에게 넘겨 질 것입니다”(교회 역사 정사 제6권 253페이지)

옛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다. 이 이름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장차 탄생할 것이다.

10. 이 지구의 온 나라가 유다의 후손을 대적하여 연합하며 유다가 고난을 겪음.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스가랴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

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 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겨지지 아니 하리라.”(스가랴 14:2)

이 문제에 관하여 우드럽 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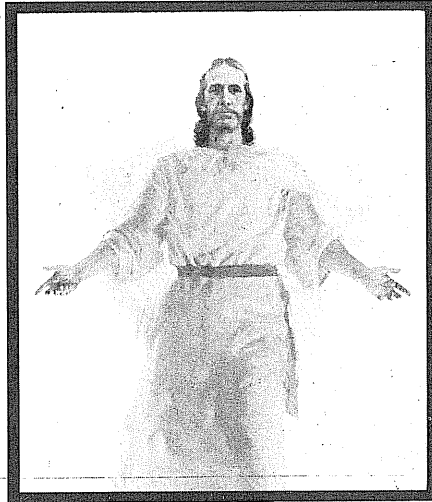
“.....오 유다의 가문이며, 너희가 돌아와 성읍을 건설하고 나라와 신전을 세우나 이방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할 것이며 너희를 제물로 삼고 짓밟으려 하며 예언자의 말씀하신 대로 이를 것이라.....”(마티아 에프 카울리 저 윌포드 우드럽 (북 크래프사 1964) 506 페이지)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분이 의혹을 품는다면 필자는 1967년 7월 4일 유엔 총회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거를 이유로 99대 0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이십개 국은 기권을 했고 99개국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표를 던졌다. 만일 유엔이 예루살렘 탈환을 위하여 중동에 군대를 보낸다면 실제로 온 세상이 유다를 대적하여 연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11. 유대 나라에 예언자 두 사람이 세워지다.

계시록 11:2-3, 6-12에 언급된 두 예언자에 관하여 요셉 스미

해리 앤더슨이 그린 구세주의 모습



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질문. 계시록 11장에 언급된 두 증인이란? (주님께서 이에 답하셨으니)

“답. 저들은 마지막 날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일으켜 세움을 받아 유대 국민에게 나아갈 두 예언자로서 유대인이 집합하여 선조의 땅에 예루살렘 도시를 세운 뒤에 유대인에게 예언할 자니라.”(교성 88 : 15)

이 예언자의 사명에 관하여 올슨 프랫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

“우리는 또한 그 시대에 예언을 하게 될 요한이 계시록에서 언급한 그 두 증인에 관하여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들은 삼년 반을 예언할 것이며 유대인들이 재건한 예루살렘이 그 활동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저들의 예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열방이 묶일 것이며 이들 예언자가 저들의 신앙과 권세로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절차로 이들 예언자가 사명을 다 해감에 따라 열방이 이들 예언자를 누르게 되고 종당에는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성내에 버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지진이 일고 이 두 증인은 하늘로 들리워 갈 것입니다. (복음 토론 제16권 329페이지)

이 두 증인에 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상세하게 알려면

계시록 11장 전체를 읽어야 한다.

12. 구주께서 유다의 후손에게 나타나심.

스가라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라 12 : 10) 교리와 성약에도 이에 관하여 언급되었으니,

“그때에 유대인이 나를 쳐다보며 말하기를 당신의 손 발에 있는 상처는 무엇이니이까? 하리니,

“그때에야 저들은 내가 주인줄 알리라. 이는 내가 저들에게 이 같이 말할 것임이니, 이 상처는 내가 나의 친구집에 있을 때에 입은 상처니, 나는 들리운 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그때에 저들은 자기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울며 저희 왕을 핍박한 연고로 애통하리라” (교성 45 : 51—53)

우드럽 대관장께서도 이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불신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은 저들의 땅에 집합할 것이며... 저들이 이같이 행하고 성을 재건한 후에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자의 말씀대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희생으로 삼고 탄압할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을 절반을 취하여 사로잡고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유대인을 탄압한 연후에 저들의 위대한 구세주 실로가 오실 것입니다.” (복음 토론 제15권 277—78페이지)

13.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그후에 왕의 왕주의 주로서 다스리심.

이에 관하여 스가라는 ;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스가라 14 : 3, 9)

교리와 성약에 보면 이 내용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 ;

“그리하면 주의 응답이 저희 머리에 임하리니, 주의 임재하심이 모든 것을 녹이는 타는 불 같은 것임이니라.

“오 주여, 내려오사 원수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면 열국 국민이 당신 앞에서 떨겠나이다.”(교성 133 : 41~42)

우드렙 대관장께서도 구세주께서 유다의 싸움을 거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 “.....그러나 이러한 고통이 닥친 후에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며, 너희의 실로가 와서 너희 가운데 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그를 알며 유대인의 고난은 끝이 나리라. 반면에 이방인의 패망이 극심하여 예루살렘에 집합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 나서도 그 죽은 적의 시체를 묻는데 일곱 달이 걸릴 것이며 쓰다 남은 전쟁 물자와 무기는 칠년이나 연료로 쓰이며 그로써 뿔감을 찾아 숲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 이 일이 참으로 놀라우니 누가 감히 증거하겠는가? 그러나 모두 참된 말씀이요 에스겔과 스가랴와 다른 예언자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늘과 땅이 다 진하여도 하나님의 뜻 한 조각이라도 이루어 지지않을 것이 없으리

라”.(카올리 509—10페이지)

14. 세계의 두 개의 위대한 수도가 세워질 것이니, 그 하나는 시온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라.

이 일에 관하여 이사야는 (말일성도 예언자들도 이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경전의 말씀을 인용하였고 같은 이야기가 교리와 성약 133 편에 소개된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이사야 2 : 2—3)

요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 두 집합의 장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옛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후에 주님께서 거하시게 될 성이 될 것이며 그때로부터 주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 대륙에 새 예루살렘인 시온이 건설되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툼이나 싸움이 없고 모든 성읍은 세상의 구속주가 거하시게 본부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집합의 처소가 되고 시온은 에브라임과 그 후손의 집결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머리 위로는 “똥성하신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임푸르브먼트 이라 22권 (1919) 815—16페이지)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졌고 그위에 예언자의 말씀과 물몬경, 값진 진주 그리고 교리와 성약을 가졌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언자가 계시다. 그분은 오늘날 교회의 총사로서 이러한 위대한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실 수 있다.

구세주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 해서 탐구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셨다. 이번 성도의 벗에 성지에 관한 기사를 실는 목적은 말일성도로 하여금 주님께서 성약을 나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더 잘 알도록 감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유다는 귀환한다

엘딘 리스



울슨 하이드 장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참 훌륭했습니다.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소는 예루살렘의 호텔 식당이었다. 유대인들과 자리를 함께 한 유일한 외국인인 나에게 이스라엘을 찾아온 동기를 물어왔다. 나는 히브리어를 전공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미국에서부터 자기들의 언어를 공부하러 왔다는 사실에 저들은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으며 이야기 끝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 제가 다니는 교회는 물론 교회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집합에 관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지실만 합니까?”

“아 그래요?” 그중 한 사람이 물어 왔다. “그 점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십구세기 초에”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셉 스미스라는 이 교회의 첫 예언자는 바로 이 경륜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사실을 예언

했습니다. 사실상 1841년에 교회의 지도자 중의 한 분인 울슨 하이드씨가 특별히 예루살렘을 방문했지요. 그분이 이곳을 방문하셔서 감람산에 올라가 유대인을 위한 헌납 기도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귀환의 정신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지요. 그런가 하면 이곳 기후와 농토가 순화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며 이로써 수 많은 인구가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온 세상의 정부가 유대인들의 정착을 가능하게 하도록 협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꼭 강의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으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먹는 일도 멈추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으므로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요셉 스미스가 유대인들의 집합에 관하여서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곳 예루살렘

에 신전이 지어져야 할 것을 예언하셨다고 하면 더 큰 흥미를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유다는 반드시 귀환하며, 예루살렘과 신전은 재건되며 물이 신전 밑에서 흘러나오며……이 모든 것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교회 역사 정사 5권 337페이지)는 요셉 스미스의 예언을 인용했다.

내가 장래의 신전에 관하여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랍비라고 알려진 사람의 반응과 관심은 대단했다. 그는 자못 흥분한 어조로 “아주 명칭한 사람이라도 우리들의 신전의 모습을 눈에 그려 보는데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리고 그 전화가 랍비에게 온 것이라는 전갈이 왔다. 그가 채 박으로 나가기도 전에 나는 이렇게 물었다.

“저 여러분이 매 금요일 밤에 사용하시는 기도의 책에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옛 성

전이 회복되게 해 달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안은 조용해졌다. 마침내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소.”

“그렇다면 저도 저의 신앙으로 거들겠습니다.” 나는 대답해 주었다. “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요셉 스미스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이르게 되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신전이 재건되게 해 달라는 간구로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때에 한 여인이 나섰다. “때로는 신의 섭리가 유대인의 집합을 인도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느껴요.”

나는 그 이야기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졌노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얼마 후에 나는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가 저들에게, 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돕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이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1956년 10월 초,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의 이집트 귀속화로 인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떠났다. 나는 드롭프시 대학에 돌아와 히브리어를 계속했고 필라델피아에서 동쪽 언어를 연구했으며 하루는 우연히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전 예루살렘의 식탁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전하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나를 발견했다. 인류학 강의가 끝난 직후였다. 중동 지역의 사람들과 그곳의 풍속을 기록으로 살피면

서 담당 교수인 라파엘 파타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릭스씨 당신의 시온 운동 연구를 근거로 대답해 주십시오. 허즐의 때 이전에 누가 첫번째 기독교인으로 시온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씨에드로 허즐이 1897년에 시온 운동의 주창자로 나섰다 때문에 1897년 이전에 기독교인으로 누가 시온 운동을 언급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었다. 나는 1830년대의 인물을 발견했노라고 대답했다.

“뭐요 1830년이라고요!” 그는 놀란 음성으로 뱉구했다. “아니 실제로 시온 운동이 이야기 되기 오십 여년 전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지요.”

“그게 누구니까. 도대체?”

“제가 다니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요셉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러니까 1830년에 이미 당신 교회의 그 요셉 스미스라는 분이 유대인의 귀환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뿐인가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흥미를 느끼실 걸요.”—여기서 나는 옛날 예루살렘의 식당에서 들려주던 바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해 주었다. —“그리고 그분은 1841년에 교회 지도자 한 분을 그곳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대인의 귀환을 위한 헌납 기도를 드리게 했답니다.”

“정말 사람이 갔습니까?” 그는

물었다.

“아니 그곳에 가서 뭘했지요?”

“감람산 위에 올라 가서 헌납 기도라는 기도를 했어요. 기후와 농토가 순화되어 여러 주민을 위한 추수를 거두게 해 달라는 간구도 했고, 온 세상의 정부가 협조하여 귀환의 가능성을 촉진하도록 간구하는 기도도 했고, 귀환의 정신이 크게 일어 나도록 기도했어요.”

그는 놀라움으로 어리둥절하다가 나의 학우 람비에게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그 기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누가 안담!”

나는 분명히 그 기도가 도움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졌노라고 대답했다.

파타이 박사는 그 다음 봄에 대학을 떠나 뉴욕에 있는 허즐 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이 되었다. 그는 내게 뉴욕으로 와서 “시온 주의와 물몬 교회”라는 논문을 써 달라고 청탁해 왔다. 아울러 “충분히 훈련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와서 나의 주장을 입증하고 여러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그분의 청탁으로 엘리스 라스무슨 박사와 폴 앤두루스 박사가 나와 함께 길을 떠났다. 논문은 크게 환영을 받았으며 후에 허즐 연구소의 연감에 출판되었다. (허즐 연구소 연감, 시온 주의의 역사와 사상. 제5권 147—74페이지)

발표가 끝나고 나서 어떤 유대계의 신사 한 분이 우리 일행 세 사람을 따라 오며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오늘 들려 주신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훌륭하신 말씀을 온 세상에 발표하실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여러 해를 두고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자 노력했으나 세상 사람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는 말을 이었다. “작은 소책자라도 수 백만 부 출판해서 온 세상에 배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작년의 그 수에즈 운하의 사건을 계기로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바다 속에 몰아 넣을 기세입니다. 당신들의 교회가 메시지를 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귀환을 성임하셨다는 사실을 조속히 만방에 알린다면 이토록 험한 시대에 세상이 생각하는 견해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회복된 그리스도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원리가 영적인 성격의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제의에 감사를 드렸다.

이러한 경험과 또 다른 경험으로 필자는 유대인들의 집합에 관한 예언을 하신 요셉 스미스의 선견 지명(본 기사에서는 그 일부분만을 취급했지만) 이 그의 예언자로서의 자질을 웅변¹⁾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대인의 집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언의 준비인 만큼 바로 이러한 오늘의 현상은 주의 오실 날이 별로 멀지 않았음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㉔



선생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소년 시절에 체험한 인상적인 교훈이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나머지 시간을 재어 보고 나는 준비해 온 원고를 접어 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빌어 내가 소년 시절에 체험했던 인상적인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소년을 헌신적으로 말아서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 여러분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들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침 나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커튼이 열린 틈으로 잔디 밭에 내려 앉은 새 두 마리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좀 큰 놈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방금 새 둥지에서 나온 것같은 작은 새였습니다. 나는 큰 새가 잔디 밭위를 경충 경충 뛰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놈은 잔디 밭에 머리를 깊숙히 박았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벌레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똑바로 서는 것이었습니

다. 작은 새는 작은 입을 있는데로 벌렸습니다. 그 큰 새는 한 번에 잡은 벌레를 삼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큰 새가 나무 가지 위로 날아가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무 가지의 썩은 부분을 한참 뒤지더니 커다란 풍덩이를 한 마리 잡아 갖고 나타났습니다. 작은 새는 다시 부리를 벌리고 기다렸지만 큰 새는 그 풍덩이를 한 입에 삼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동안 작은 새의 불평의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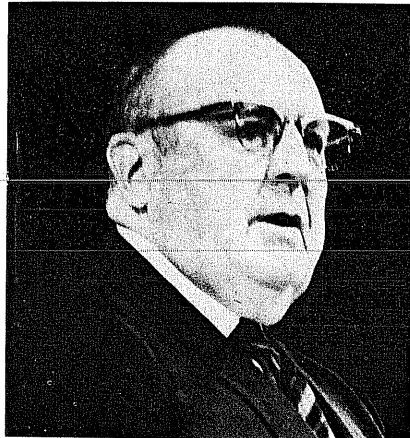
큰 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다시는 눈에 띄이지 않았습니 다. 나는 작은 새를 주시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작은 새는 잔디 위를 돌아 다니며 발로 헤치더니 큰 벌레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말아 가르치시는 선하신 형제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구했습니다. 아멘 ㉕

개인이 갖는 간증의 중요성

성신의 권세는 교회 회원에게 확신을 주며, 굳건하게 만들고 현명하게 하고 단합하도록 한다.

오늘 아침과 오후에 바로 이 대회장에서 여러분들이 전하신 굳건한 간증의 말씀이 참으로 감명 깊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의 간증이 참으로 굳건하고 확실하며 강한 호소력을 가진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번에 말씀해 주신 피터슨 형제님의 말씀도 진지하게 정곡을 찔러 주셨고 페더스톤 감독이나 피터슨 감독의 생활과 연관된 그 간증의 말씀은 접허하면서도 분명했고 킴블 형제님의 말씀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간곡하면서도 진실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간증이야말로 우리들의 생애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장로
십이사도 보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굳건한 간증의 예로서는 신전 문 앞에서 절름발이를 고쳐 준 후 재판장 앞에 끌려 온 베드로가 한 간증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8-12)

두 번째로 큰 간증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드린 간증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교”(마태복음 16:13-19)

많은 교회가 점차로 신도를 잃고 인기가 하락되고 있을 때 도대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발전과 안정이 무엇에 기인한 것일가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비

밀은 복음이 참된 원리의 모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실한 교회 회원의 개별적인 간증에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이고 의식에 좇아 살며 하나님의 영인 성신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남녘을 막론하고 고루 주어집니다.” (행복의 길 [북 크래프트사 1957년] 314—5페이지)

임팩트지¹⁾의 서문을 빌어서 윌리엄 이 배레트 형제님은 오늘날 교회를 인도하고 단합시키는 성신의 영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위대한 기적으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과 권능으로 임명된 수많은 지도자들을 단합시키는 영을 들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 임명된 사람들은 그 생활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부름을 따름에 있어서 하나로 총화된 단결을 보이며 교회의 근본 원리를 받아 들이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합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며 세상 교회에 적용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합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성신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혹 그것이 살아 계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거나 경전을 통하여 전달되거나 간에 진리를 알게도 됩니다. 브리감 영의 말씀 가운데 ‘천사의 달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권세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

시며 진리가 그의 보좌가 되신다고 하는 진리를 누구에게도 입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성령의 권세가 없을 때 그것은 한낱 빈 소리의 연결일 뿐이다. 과연 인간을 설득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이의 능력으로서 사람의 의지를 밝히며 깨닫는 눈을 뜨게 하는 가르침이 된다.’”(임팩트지 1970년 봄, 2페이지)

이 교회의 회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동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합당함에 따라 우리는 성령을 영원한 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이로써 성령이 전하는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합당하게 살아 성령을 동반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에 관하여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주는 나를 두려워 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이다.

“또 저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니, 곧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미래에 이르기까지 숨겨온 나의 왕국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려주며 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한 나의 뜻을 알게 하리라.

“참으로 영원히 놀라운 일도 저들이 알게 될 것이요, 장차 있을 일 곧 여러 세대의 일까지도 내가 저들에게 보여 주리라.

“그러하여 저들의 지혜는 커질 것이요, 이해력은 하늘에 까지 미치리니, 저들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소멸될 것이요, 분별력이 있는 자의

이해력이 없어지리라.

“이는 나의 영으로써 깨닫게 하며 나의 권능으로써 나의 뜻의 비밀 곧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저들에게 알려줄 것임이니라.”(교성 76 : 5—10)

주님께서는 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교성 84 : 46)

십이사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입니다. 과연 그분들 중에 몇 분이나 직접 그리스도를 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그점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으니깐요.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증에 필요한 확신은 성령을 통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해럴드 비리 대관장님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청중 가운데 구세주를 직접 대면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치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듯한 확신과 간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청년과 교회 [테저렛 출판사] 1970년 51페이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생활에 작용하는 영의 증거에 대하여 소상하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거나 시현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강한 증거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또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꾀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꾀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1) 세미너리 교사용 간행물이었으나 현재는 폐간되었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 : 31-32)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히브리서 6 : 4-6)

스미스 대관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 “.....성령을 통하여 얻 어지는 확신은 시현으로 주어지는 것 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그것은 영과 영의 대화로서 영혼에 찍혀지는 그 자국은 여간해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명한 그림을 성령이 자기 영혼 위에 새겨 주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열심으로 구하라[데저렛 출판사 1970] 213-14페이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올리버 카우드리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영의 나태냄으로써 이야기된 내 경전의 일부가 실려있는 옛 기록인 조각문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을 믿으며 정실한 마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구하면 무엇에 관한 지식이든지 얻게 됨은 네 하나님이요, 구속주이신 주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참으로 분명하도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 보

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를 인도하여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영이니라.”(교리와 성약 8 : 1-3)

복음의 거룩함을 언제라도 확신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 생활에 성령을 동반자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우리의 삶은 복음의 표준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주의 영은 성스럽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시지 아니하심에”(힐라맨서 4 : 24)

2.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담대한 구세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에 예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 : 15, 17)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또 나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요,”(교리와 성약 93 : 1-2)

우리는 자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간구하곤 합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이에 관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느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

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성 9 : 8)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다 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것이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영의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관하여 선지자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니라. 너희는 바로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아노라.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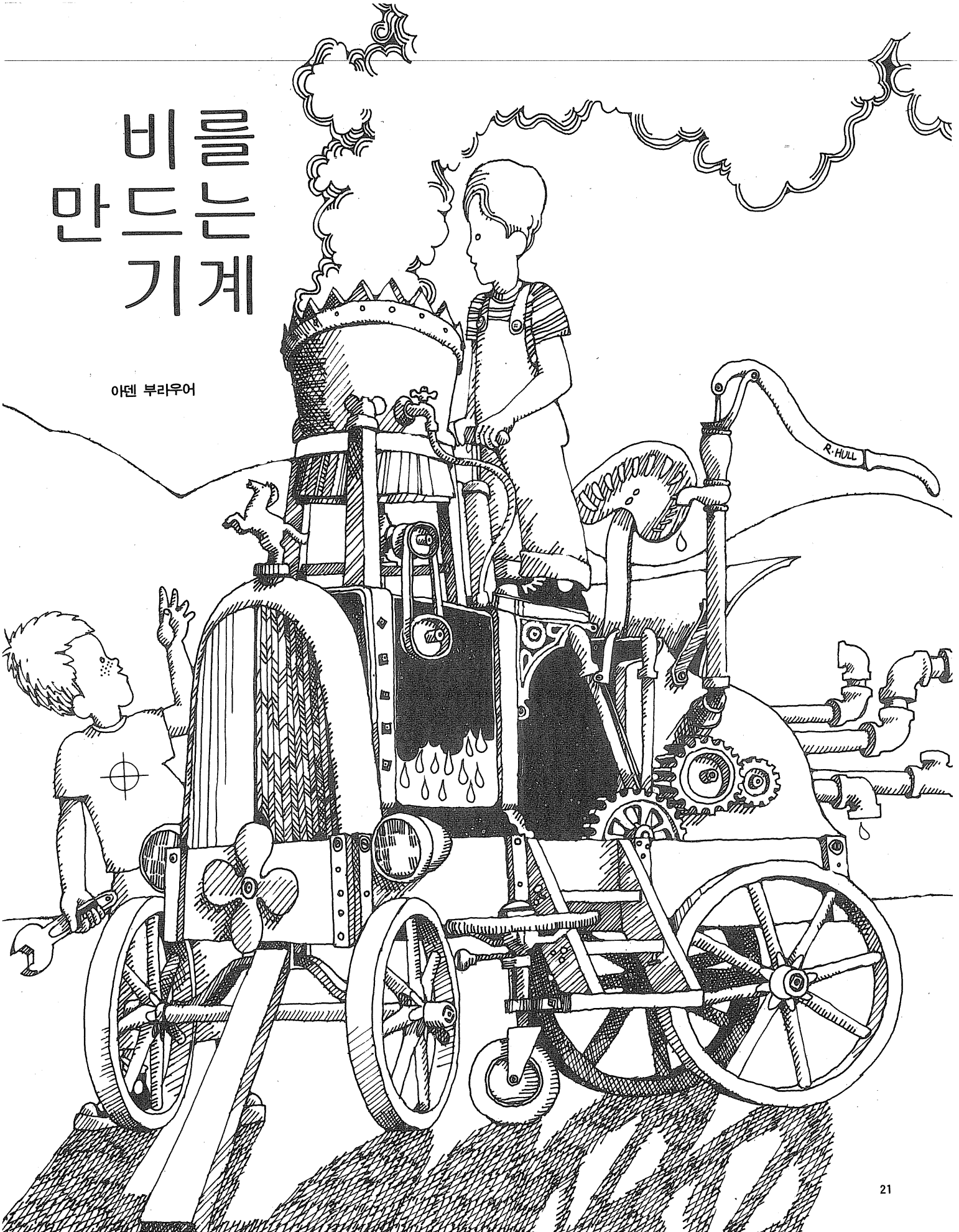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 하였으며 이제 그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아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 바로 내게 임한 계시의 영이었느니라.”(엘마서 5:45, 46)

그렇습니다.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교성 84 : 46 참조)

영의 증거로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간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조셉 필딩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시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위대한 삶과 구원의 계획이 된다는 간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의 간증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드리는 저 개인의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비를 만드는 기계

아덴 부라우어



비를 만드는 기계

라벤은 명랑한 걸음으로 그의 농원집 문을 나섰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수탉은 수선스럽게 해를 치며 큰 목청으로 아직도 여름이 더 남아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외치고 있었다.

라벤은 하늘을 쳐다 보았다. 아직도 구름은 한 점도 없었다. 가뭄이 시작된 지도 어언 여덟 달, 그런데도 일기가 변동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라벤은 아빠와 또 이 마을의 다른 농부가 얼마 있지 않으면 전혀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라벤은 헛간으로 가서 말 두필과 암소를 실 지렁이 같이 가게 흐르는 개울로 데리고 갔다. 전혀 텅빈 개울 건너 편에서 페퍼필드씨가 이 쪽을 건너다 보고 있는 것을 라벤은 쳐다 보았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페퍼필드 아저씨?” 라벤이 인사를 했다. “또 뜨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구나!” 페퍼필드씨가 빨간 색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땀을 씻으면서 대답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뭄을 멈추게 했으면 좋겠구나. 라벤, 이제 곡

식이 타는 건 아예 염려도 않는다. 가축이 모두 죽을 것 같아서 그걸 걱정이 되는구나.”

라벤은 말과 소를 다시 헛간 쪽으로 몰고 왔다.

“정말이지 어떻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페퍼필드 아저씨, 무엇이랄도!……”

라벤은 작별의 뜻으로 손을 흔들며 가축의 뒤를 따랐다.

아침 나절의 잔일과 조반이 끝나고 라벤은 상점으로 갔다. 잡지 판매대 앞에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코니 스톡크가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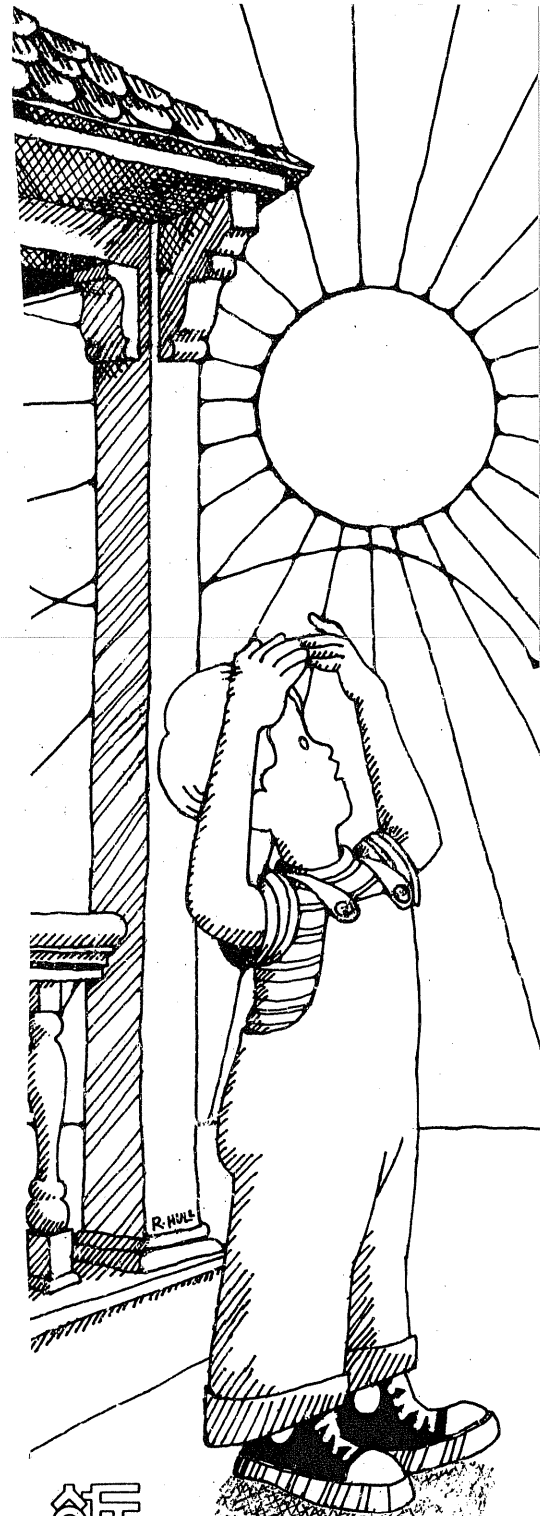
“어이 코니” 라벤이 말했다.

“뭘 하니?” “잘 있었어? 라벤” 코니가 대답했다. “나 잡지 좀 보고 있어. 아빠가 휴가를 주셨거든. 너 오늘 오후에 뭐 할게 있니?”

“아니” 라벤이 대답했다. “우리 둘이서 이번 토요일에 있을 마을 시가 행진에 대비할 뭘 좀 생각해 보자. 이제 이틀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 것도 생각한게 없잖아.”

“그래, 그렇지만 아주 특이한 것이 아니라면 난 아예 그만 둘란다” 코니가 말했다.

라벤은 잡지를 빼들고 뒤적이기 시작했다. 인디안의 비 춤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그는



영웅

1973년 2월호

극도로 흥분하게 되었다. “야 코니” 그는 말했다. “나 그럴듯한 생각이 떠올랐다! 행진에 쓸 자전거를 장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자.”

“뭐, 무엇?”

“비 기계! 모두들 가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니. 아주 재미있는 기계를 그럴듯 하게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기계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자. 이만하면 좀 색다르지 않겠니! 어때?”

“좋다” 코니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도대체 뭘로 만들지?”

“지금부터 온 마을의 헛간을 뒤지는 거다. 뭔가가 발견될 거야”

소년들은 오후가 다 지나도록 집집마다 돌아 다니며 내다 버릴 현 고물이 없겠느냐고 물었고 대개는 “마음대로 이 중에서 골라가렴”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소년들은 기쁘게 골랐다.

라벤과 코니는 낡은 자동차 부속도 얻었고, 현 마차, 전초 깎는 기계, 수목 절단기, 쇠스랑, 갈퀴 등등의 고물을 수집했다. 그들은 또 그랏치 판, 기아, 선풍기 날개, 기계의 톱니, 쇠 파이프, 운전대, 바퀴, 낡은 구리로 된 세탁기 등도 얻었다. 이들은 또 오래된 물펌프, 오십 년이나 된 4륜 마차, 에어 펌프도 수

집했다. 그리고는 해가 질 때까지 그 다음날 온종일과 그날 밤이 새도록 수집해 온 물건으로 만들어 보았다.

시가 행렬의 날 아침도 그해의 거의 모든 여름과 마찬가지로 햇빛이 찬란한 아침이었다. 소년들은 비 기계를 라벤의 헛간에서 끌어 냈다. 그리고 상점가로 향하여 끌고 나갔다. 바로 그곳이 시가 행진의 시발점이었다.

기계는 낡은 4륜 마차 받침대 위에 놓여 있도록 되었고 빨강, 초록, 분홍, 파랑, 황색, 은색, 금색, 구리색 등으로 칠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생일 파티에 쓰다 남은 장식 부스러기를 온통 뒤집어 씌웠다.

양 편에다가 아주 단정하게 비 기계라고 써 붙였다.

구리 세탁기 안에다가는 상점에 특별히 주문한 드라이 아이스를 잔뜩 담았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어서 흰 김이 오르도록 했다. 라벤은 기계 위에 타고 앉아 낡은 에어 펌프를 돌리는 거다. 흰 연기가 기계위로 뭉게 뭉게 올라 가도록.

코니는 기계를 끌었다. 라벤은 또 그 위에서 온갖 쇠붙이를 두들겨 이상스러운 소리를 내도록 했다.

행렬이 거의 마을 중심부에 이르렀을 때 라벤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코니 저 위를 봐라!” 그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코니는 잠시 발을 멈추고 저 수평선으로 뭉게 뭉게 솟아 오르는 구름을 보았다.

“저게 정말 구름이니?”

라벤은 힘을 주어 펌프질을 했다. 이때쯤 라벤의 연기는 삼층 높이 위로 치솟고 있었다.

행진이 끝난 다음 소년들은 비 기계를 라벤의 헛간 앞에 세워 두었다. 그리고 급히 행사 현장으로 상을 받으러 달려갔다. 이때쯤 이미 사면에는 어두운 구름이 몰려와 덮혀 있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다가 라벤이 얼른 손바닥을 폈다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코니!” 그는 소리를 질렀다. “빗방울인 것 같다.”

소년들은 걸음을 멈추었고 빗방울이 메마른 땅에 떨어져 빨려드는 것을 보았다.

“비다. 비가 온다!” 코니는 비를 받으려고 입을 벌리면서 소리 소리 질렀다. 두 소년은 노래를 부르며 경충 경충 뛰었다.

“신난다. 비가 온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더니 마

침내 장대같이 쏟아졌고 그날 밤 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왔다. 비가 그치고도 구름은 약 일주일이나 머물어 있으면서 가

학적인 구조라고는 한 곳도 없어요” 라벤이 설명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오로지 그 기계가 만들어진 날부터

계를 헛간으로 끌고 들어가 해체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완전히 정리를 끝내고 나서 코니와 라벤은 헛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두 소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맑게 개인 푸른 하늘이 보였다. 다시 햇빛이 빛나고 있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고 들 곡식 나무는 무럭 무럭 자랐고 동물에게 필요한 물은 풍부했다. 그러나 아무도 비 기계에 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근처 큰 도시의 신문 기자인 히스씨가 라벤과 코니를 찾아 이곳을 방문한 것이다. 두 소년은 일의 자초지종을 빠짐없이 기자에게 전했다. 셋은 라벤의 헛간 뒤로 가서 한때 비 기계였던 온갖 부속과 낡은 부스러기의 잔해를 내려다 보았다. 히스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히스씨 우리 기계가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라벤이 설명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기계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코니도 거들었다. 그는 라벤에게 쩡긋해 보였다. “우리에게 언제 다시 가뭄이 올지 모르거든요!”



끔씩 비를 뿌려 주었다. 옆 마을에는 우박이 육 인치나 내렸고 맨스필드 산 꼭대기는 눈이 사 인치나 덮혔다.

그후 아흐레가 지나서 라벤은 페퍼필드 아저씨의 전화를 받았다. “그 비 기계를 부수지 않으면 온통 장마가 지겠다. 라벤.” 사뭇 경고의 이야기였다.

“그렇지만 페퍼필드 아저씨! 그 기계는 그저 장난감인걸요. 골동품으로 만든 것이랍니다. 파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야. 내일 밤 쫘에 기계를 부수도록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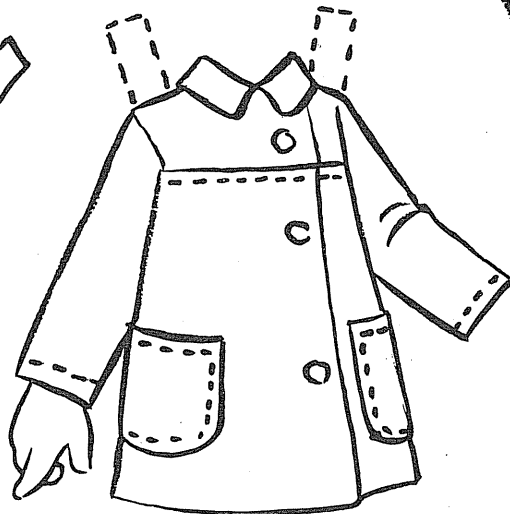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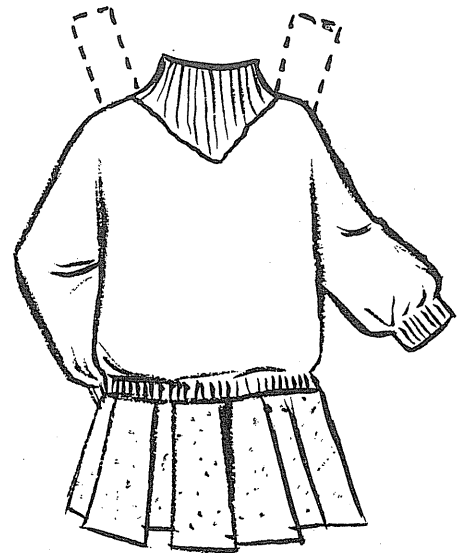
그날 저녁에는 온통 마을 사람들이 라벤에게 전화를 걸어 비 기계를 없애 달라고 했다.

“그래. 이젠 부수도록 하렴!” 아빠도 그렇게 권고하셨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페퍼필드 아저씨는 즐거워 하실거고 모두들 좋아할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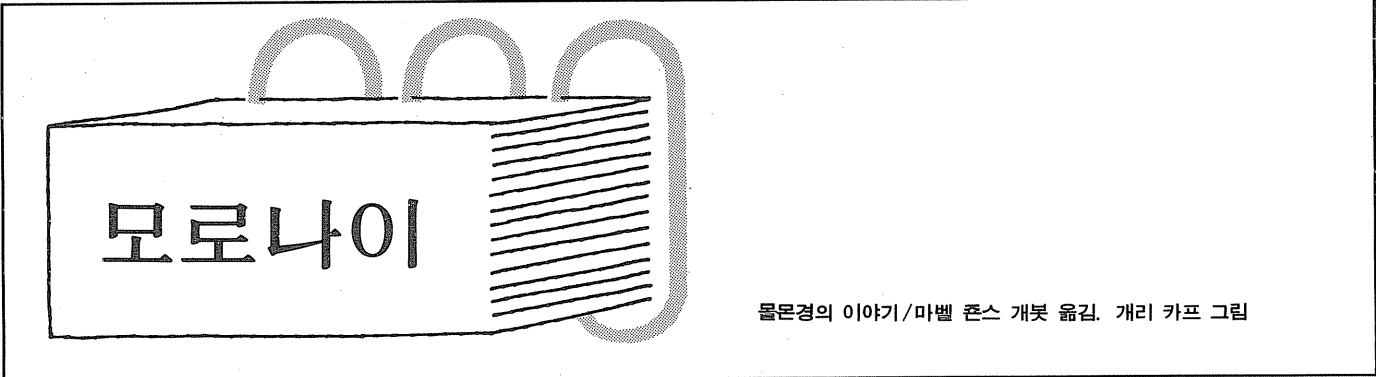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 라벤과 코니는 기

종이인형

비버리 존스톤







물론경의 이야기/마벨 존스 개뿔 옮김, 개리 카프 그림

모로나이는 그늘진 어둡컴컴한 곳에 숨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숨어서 모로나이는 밖으로 뛰어나갈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그는 레이맨인들이, 그의 용감한 만 명의 군대와 그의 아버지의 만 명의 군대와 또 다른 만 명의 니파이인을 죽인 것처럼, 그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죽은 시체와 파괴의 잔해는 도처에 널려 있었다. 모로나이의 아버지인 물론과 그의 친척들은 모두 전장에서 살해된 것이다.

그는 이제 친구도, 갈 곳도 없는 몸이었다.

그는 이 슬픈 이야기를 쓰기 위하여 홀로 남아있는 것이다.

“보라 저들간에 싸움이 치열하며 증오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부인하려 하지 않는 니파이인들을 모두 죽여 없앴이라 나 모로나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할 것인즉,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리 저리 헤매노라.”

밤이 되자 모로나이는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서 다른 많은 기록과 함께 언덕에다 파 묻었던 그 기록을 마쳐야 할 커다란 임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그때까지 연명할 양식을 찾으러 사냥을 나갔다.

모로나이는 아버지의 기록을 마친 후 다른 판과 함께 안전하게 보전하려 했으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야벳 가족의 이야기와 니파이 민족보다 먼저 미대륙에 건너갔던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실은 24권의 금판을 받

전했다.

그 기록은 이더 선지자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었다. 그것은 길고,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름답게 쓰여져 있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모로나이는 이야기를 요약하기 시작했다.

그는 야벳 형제가 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야벳 형제의 기사를 읽는 것에 위압감을 느꼈고 그것이 완전한 것임을 알았다.

모로나이는 주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모든 자들도 당신께서 저들에게 주신 성신으로 인하여 말을 더욱 많이 하게 하시었음이니이다. “또한 당신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손재주로 조금 밖에는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보소서 당신께서는 기록함에 있어 우리에게 야벳 형제와 같은 능력을 주시지 아니 하셨으니……우리가 기록한 때에 그 연약함을 아오며, 말은 어찌 써야 할까로 어려움을 당하는지라.”

또 주께서는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라고 모로나이를 위로하였다.

주님은 또한 야벳 형제들의 기사를 쓰라고 명하고 얼마동안 그 책을 봉하라고 말씀하셨다.

모로나이는 그대로 했으며 그것을 아버지의 책에다

덧붙였다.

그는 진리와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찬 물몬이 그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를 열심히 기록했다.

모로나이는 이땅에 홀로 남은 외로운 존재였다.

그는 그것들을 봉하기 전에 판에다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했다.

그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교회의 회원들이 자주 만나 기도하며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방법, 그들이 어떻게 침례를 받았고 성찬을 어떻게 관리했으며 또 축복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도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판을 받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

그런후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힘을 부정하지 말도록 간절히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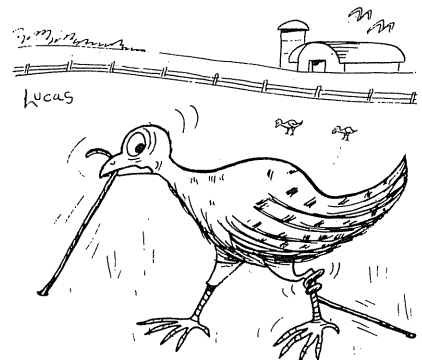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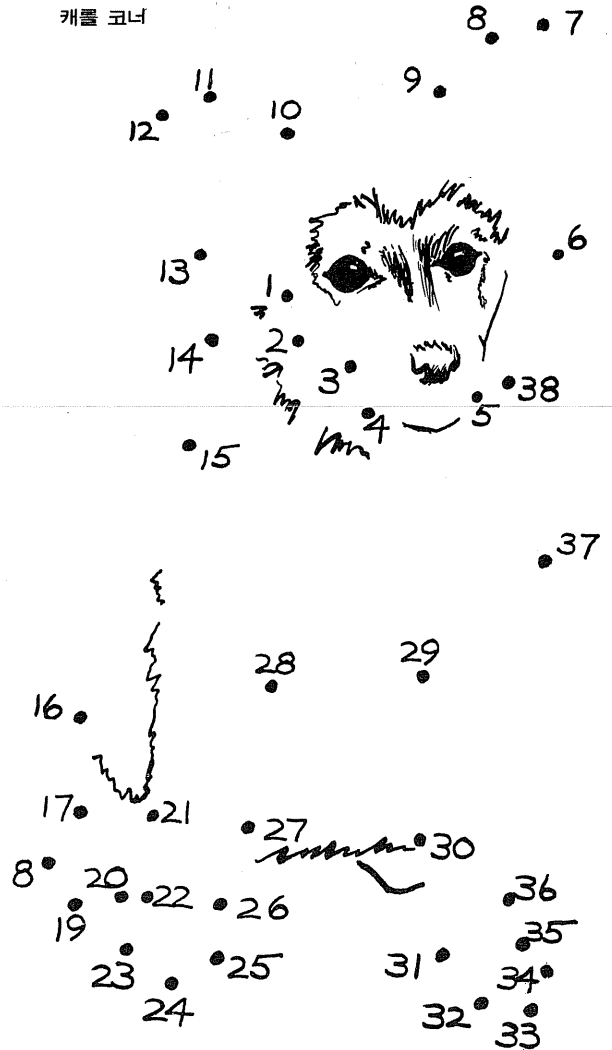
그는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을진대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라도 다 행할 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미 대륙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니파이인을 방문한지가 400년이 넘었다.

물몬은 “이제 이 기록들을 인봉하노라……이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노라”고 함으로 그의 기록을 모두 마쳤다. ㉔

점 잇기

캐를 코너



정책 프로그램

교회 뉴스

정책과 교회 프로그램은 교회 회원으로 하여금 교회 정책의 규범 안에서 질서 있는 생활을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창안되었다. 이곳에 소개되는 많은 절차 규범이 이미 보조 조직의 역원을 통해서 신권 공보라는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며 이곳의 기사는 신권 공보에서 많이 인용된 것이다. 물론 다른 자료에서도 일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가끔 인용하여 실기로 한다.

상호부조회 기금 모금

“대관장단의 지시로 상호부조회는 자주적인 예산 확보 정책이 1970년 9월 1일을 기해서 변경된다. 이 변경된 정책에 의하면 상호부조회는 소속 와드나, 지부 혹은 스테이크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상호부조회로 하여금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데 시간과 정열을 바치게 하려는 처사이며, 그 예로는 가사의 재능, 회원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일 등을 들 수 있고 기금 모금과 같은 사업을 그 월래의 주관 부서인 신권으로 돌리는 데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상호부조회는 보고서 검토해 보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활동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또 대관장단의 배려로 상호부조회는 재정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다.”

“다른 보조 조직과 마찬가지로 상호부조회도 교회의 보조 조직인 만큼 신권 지도자를 위한 활동에 협조할 수가 있다. 예산의 확보는 와드나 지부나 스테이크가 책임을 질 문제로서 감독이나 지부장이나 스테이크 부장의 지휘로 정리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예산 확보는 지부나 와드 회원 개개인의 개별적인 헌금에 의존함으로써 가장 평범하고 또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신권 공보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성임되거나 성별될 때 가족의 협조

“현재의 상황에 따라 누가 교회 직책에 임명되거나 신권의 직에 성임될 때 다음 절차를 쫓기로 지시되었다.”

“한 가족의 부인이나 자녀를 와드나 스테이크의 어떤 직책에 성별하거나 아들이나 딸을 복음 선교사로 추천하려 하거나 할 때에는 그 가정의 장에게 의도하는 바를 알리고 그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부인이 교회 직책에 부름을 받고 성별될 때에는

그의 남편을 참석하도록 초청함이 합당하다. 한 가정의 자녀가 성임되거나 성별될 때에는 그 부모를 초대함이 합당하다.”—신권 공보.

계보 위원회 내의 변경

십이사도 보조인 디에드로 엠 버튼 장로님이 계보 위원회의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버튼 장로에게 회장직을 물려준 십이사도이신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계속해서 위원회의 감사역을 맡는다.

아울러 이번에 12사도 정원회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도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의 뒤를 이어 위원회의 임원직을 맡으셨다.

계보 위원회의 회장단 직책 변동은 십이사도들이 세부 직책 관리에서 손을 떼어 지나친 과로를 해소시키자는 대관장단의 의사에 반영이다.



데오도로 엠 버튼 장로



셔만 엠 크럼프

아론 신권 총 서기 임명

아론 신권 총 서기의 임명은 최근 관리 감독단에서 발표한 바 있다. 버틀러 스테이크의 부장이신 셔만 엠 크럼프 형제가 이 직책에 임명되었다. “나의 주요 임무는 12세로부터 19세까지의 젊은 남녀의 활동을 조절해 주는 것”이라고 크럼프 부장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미 관리 감독단에서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는 목표를 세우셨으므로 우리들의 임무는 젊은이들이 영원한 신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신권을 존중할 것을 가르치며 신권 활동에 참여시키고 부모로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데 있다”고 하셨다. ■

선교 사업의 기적

선교사의 희생과 봉사와 결의로 얻어지는 기쁨

형

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견해입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업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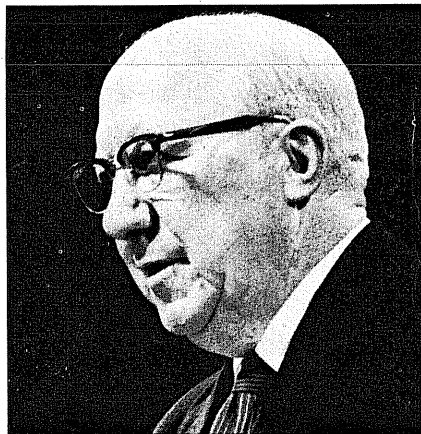
현재 교회에는 선교부가 아흔 여덟 개가 있으며 전 세계에 고루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약 15,400 여명의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선교 사업에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스테이크 선교부에 연속된 각계각층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역시 선교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상당수가 자비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친구나 가족이나 친지 혹은 대신권 정원회의 보조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대부분의 연령은 십 구세에서 이십 이세로서 아마 일반적인 견해로는 이 정도 연령의 젊은이들이 교회 사업 같은 것에 그것도 모든 자기의 시간을 교회 사업에 헌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일단 학업도 중단하고 결혼도 뒤로 미루며 군복무까지도 뒤로 조절하여 구세주와 교회를 위한 봉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선교사가 부름을 받아 나갈 때마다 선교 사업의 기적은 되풀이 되며 재정적인 뒷받침



밀튼 알 헌터 장로
칠십인 제일 회장단

을 해 주는 사람의 희생도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근대의 이 선교 사업의 기적은 왜 일어날까요?

첫째, 이러한 선교사업의 진전은 친히 선교사로 나가 일하겠다는 젊은이와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사람이 모두 저들이 1830년에 이땅에 회복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간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교회라는 점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이 있고 하나님의 참 교리와 의식이 있으며 인간을 해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창조주와 함께 생활하게 할 수 있는 권세

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지원하며 저들에게 자기들이 받고 있는 축복과 기쁨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대의 놀라운 선교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는 교회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제명을 내려 주셨습니다:

“은 세상에 나가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을 행사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생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 받으리라.”(교성 68 : 8—9)

내가 여러 선교부를 둘러 보는 중에 많은 선교사와 개종자들이 내게 아주 특이한 경험이랄까 기적적인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스테이크 부장은 다음과 같은 체험담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의 스테이크에 속한 부유한 가정의 한 젊은이가 선교사로부터 복음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그 부모에게는 별로 흥미있는 일이 못 되었습니다. 부모는 젊은이가 교회에 참가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설득했지만 젊은이는 자기에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강한 간증이 있다

고 주장했고 자기는 꼭 이 교회에 입교 하겠노라고 주장 했습니다. 이쯤 되자 부모들도 단호하게 맞서서 만약 그 아들이 물몬교도가 되면 의절을 하고 말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교회에 가입했으며 부모는 그 젊은이를 집에서 내 놓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물몬 가정의 후자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이 선교사로 떠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는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그의 부모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부모는 그에게 그가 선교사로 떠나면 편지도 안할 뿐 아니라 재정적인 뒷바라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집으로 찾아 오지도 말라는 내용의 마지막 편지를 전했습니다.

일년 쯤 후에, 그 젊은이가 선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밤 한 시쯤에 스테이크 부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냥한 부인의 목소리가 전화 저 끝에서 들렸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가 돈을 보내주고 싶은 한 젊은 선교사의 주소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사랑은 종교적인 견해 차이를 초월하여 아들에게로 이렇게 기울어 진 것입니다.

한 선교부를 방문했다가 대학 재학 시절에 국가 농구 대표선수로 활약했던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여러 곳에서 거액을 제시하며 프로 팀 입단을 중용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또 한 선교사는 고교 졸업시에 30,000불의 연봉을 받고 야구선수로 뛰여 달라는 청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역시 그러한 제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있어서 과연 거액을 받

고 운동 선수로 활약할 것이냐 아니면 선교사로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데는, 특히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대단한 신앙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일성도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미에서 자매 선교사 한분이 내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여 선교사의 부름을 받게 된 자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선교사가 되기전에 그녀는 간호원이었습니다. 그녀의 한방 동료가 물몬이었습니다. 간호원은 물몬 처녀의 행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인품과 태도에도 호감이 갔습니다. 그리하여 간호원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물몬 처녀는 선교사 들을 연결하여 그 간호원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간호원이 물몬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부모들은 그러한 그녀의 행동에 극구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교회에 개종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한편 만일 개종하는 날에는 부모 자식의 관계는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 교회라는 확고 부동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녀는 그가 사랑하는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선교사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 빠 엄마가 모두 그녀에게 다시는 집에 들어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녀는 슬픔을 어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교회에 들어 온 후에 그녀는 선교사로 일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불을 저축하는데 삼 사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남미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곳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 길에 오를 그녀는 부모의 사랑과 애정을 다시 얻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몇해전에 한 선교부를 방문하고 오는 길에 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있을 동안 몇 명이나 개종 시켰나? 나는 그때 그가 있었던 마을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도 못 시켰네. 그곳에서 나와 나의 동반자는 형편없는 선교사 노릇을 했어.”

나는 그에게 최근에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노라고 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자 한 여인이 선교부장과 내가 있는 곳으로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몬교 선교사 두 분이 저희 집을 여러번 방문해서 저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실 때 마다 저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그분들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저의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내용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떠나면 저는 바로 거실로 달려가 그분들이 테이블에 놓고 가신 책자를 챙겼습니다. 그때 가지고는 저의 방으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우는 새로운 사실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물몬경을 구해 읽었어요. 그리고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참 교회라는 굳은 간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후 제가 나이를 더 먹은 후에 물몬 선교사 두분이 다시 저희 마을로 오셨고 그분들이 저를 침례하셨습니다.”

입니다. 제가 교회의 회원이 된 다음에 저는 저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개종하게 되므로서 이 교회로 인도하게 된 회원이 약 오십 명 정도나 된답니다.”

저는 저의 친구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나, 자네와 자네 동반자는 그 마을에 있는 오십 명에게 간접적으로 공부를 시킨 것일세. 자네들은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말일세.”

한 선교사가 체험했노라고 들려 준 전도 방법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를 참 교회로 인도하셨던 방법을 내게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동반자와 함께 어떤 집 대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인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이들을 안으로 불러 들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젊은이는 오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라고 우리 집엘 오셨구면, 나는 아주 오랫동안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불만이 많았대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모두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또 그 교회가 우리의 구세주께서 세우신 참 교회가 아닐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이러한 의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시어 참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참 교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잠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두 젊은이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나가 문을 여니까 그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보니 당신들이 내가 꿈에서 본 젊은이들이었어요. 아 그리고 내가 꿈에서 들은대로 당신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주님의 종인 줄 알아요. 자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선교사는 이토록 극진한 환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이 훌륭한 부인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받아 드렸습니다. 그 부인은 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얼마 뒤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이와 같은 또 하나의 현대의 기적을 우리는 선교사업에서 다시 찾아 봅니다. 여러 선교부장과 그 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헌신과 신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따르는 봉사와 헌신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봉직하는 대관장단이 한 선교부를 맡을 선교부장과 그의 부인을 부를 때는 그 직업이나 직위를 막론하고 부름을 수락한다. 온갖 개인의 문제는 옆으로 제쳐 놓고 성실한 마음으로 대관장단을 통한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 삼년이란 세월을 선교 사업에 바칩니다.

선교부장으로의 부름에 대한 수락, 그 부름을 받고 나서의 여러 가지 체험, 경제적인 환경의 적응, 가족과 생활의 완전한 주변 조건의 개조등은 또 다른 현대 선교 사업의 기적입니다.

최근 어떤 선교부장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관장단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직장 책임자에게 휴직원을 제출하면서 삼년 동안 휴직 사원으로서의 재정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회사가 아주 부유한 회사였기 때문에 휴직 사원에게 연금 자격 연한의 협조를 해 준다면 선교 사업 후에 충분히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비회원으로서, 그

가 선교부장으로의 부름을 수락하는데 불만을 표시하며 그 부름에 응하(면 회사가 수여하는 온갖 연금 협조를 끊고 직장도 박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부름에 응했으며 현재 그의 교회와 그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선교부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업을 위한 부름에 응함으로써 야기되는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왜 대관장단의 형제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부름을 삼년만 지연시키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는 이와같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삼년 후를 위해서 부르실 것이 아닙니다. 당장 봉사하라고 부르셨지요. 저와 저의 아내는 주님의 부름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정신을 전제로 하는 봉사가 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 역시 현대의 선교 사업의 기적입니다.

끝으로 이 교회가 주님과 또 다른 하늘 천사의 협조로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지상에 회복된 참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 계시로 전 달된 절차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과 아들의 면전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㉞



교통의 통로를 확고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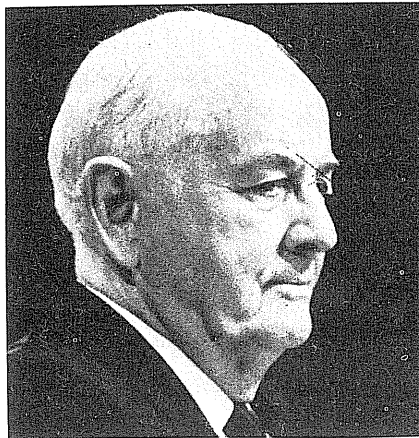
단절된 교통이 어떻게 죄와 잘못과 슬픔으로 이어지는가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거룩한 뜻을 간증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명과 예언자와 여러 지도자의 사명에 관하여 간증을 드리는 일은 늘 두렵고도 벅찬 기쁨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회 이래 이 세상을 떠나신 리차드 이반스 형제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원회에 아주 유망한 애쉬튼 형제를 열 두 번째 형제로 맞아 들였습니다. 우리는 피터슨 형제와 페더스톤 형제가 총관리 역원이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직책을 맡으신 반벤버그 감독과 그의 두 보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쁨을 감사합니다.

때는 부활절의 시기요, —예루살렘의 성밖, 작은 정원, 그 비좁은 무덤, 거친 곳에서 있었던 거룩한 부활의 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되 살피 보는 때입니다. 부활은 이른 아침에 일어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전에는 이 지상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나 부활하신 주가 그 몸을 보이시고 그 손과 발에 남겨진 상처의 자리를 만져서 느끼면서도 주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가까이 하며 믿던 수백명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서리

이는 작은 마을의 구유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요, 요단 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골고다 산에 달리시며 언덕 위 바위 무덤에 누어지시고 무덤 근처 정원에 부활한 몸으로 서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가 겪으신 고난과 그의 위대한 희생은 우리가 그의 제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 하느냐”(누가6:46)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제명을 지키라”(요한14:15)

우리가 주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주님과 교통과 대화를 잃습니다.

우리는 남 아메리카에서 이러한 교통 두절의 상태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알제틴의 서북 변방지대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장 지대였습니다. 길은 곧고 좁은 채로 끝없이 연결되어 있었고 길 양 편으로는 철조망이 늘어 서 있었습니다. 그 나란히 연결된 철조망과 함께 세상의 통신을 위한 전화줄을 연결한 전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전주 하나 하나 위에는 막대기가 가로 질러져 있고 그 곳에 전화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계속해서 달리다가 무성한 목초가 불에 타버린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주가 불에 타서 밑이 온통 슬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차를 타고 달리면서 담배 꽂초를 차창 밖으로 던진 모양입니다. 그것이 목초에 인화되어 전화 통신은 두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 근처의 전주는 모두 그 모양으로 불에 그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밑 부분은 타서 없어 졌지만 윗부분과 줄이 양쪽 전주에 의지하여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대롱 대롱 매달린 부분이 바람이 불때마다 지면을 건드리게 되고 그럴때마다 전선에는 공전 상태가 일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어진 부분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때 그 전화선과 전주가 사

람의 경우와 흡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단하게 서서 전선의 하중을 지탱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를 못해서 늘어져 흔들거리다가 교통의 불편이나 단절을 초래하고 맙니다.

대개의 원만치 못한 결혼의 경우 그 문제 점이 상호 교통의 결여에 기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으로 배웁니다. 줄은 처치고 전주가 탔으며, 남편과 아내는 불화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할 곳에 황량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조화가 있어야 할 곳에 불신과 증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문제 부부의 경우, 이들은 영원한 결혼의 불과 수 삼년을 생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에서 나는 성약의 자녀 둘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아이를 두고 이제 둘이 저마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관은 특히 영적인 것과는(다른 많은 것과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상대가 광적이라고 부르려는 그런 길을 고집했고 다른 하나는 또 상대가 배도라고 지적하는 그런 삶을 고집했습니다. 만 둘다 틀린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문제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점점 의도했던 타협점에서는 먼 이야기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근본적으로는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불타지 않은 전주와 성한, 늘어지지 않은 대화의 전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합당한, 사리에 따른 그런 대화의 결핍이 마침내는 분노와 거친 언사와 오해를 유발시켰습니다.

상호 이해와 관용과 위안의 대화와 있어야 할 곳에 전혀 엉뚱한 것을 두게 된 상호 불신과 불경의 시작이 급기야 행동적인 반발로 싹터서 간음이 라는 것으로 결말을 짓게 했고 그것은

두 개의 깨진 가정과 실패한 두 사람의 배우자를 탄생시켰으며 깨어진 희망 그리고 상처입은 자녀를 만들고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행은 근본적으로 선한 두 사람이 저들의 교통의 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안전한 전주의 관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인 것이며 이들은 하나 같이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지극히 높은 소망을 가지고 상호 신뢰를 의치고 처음을 시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루는 한 스테이크 대회를 마치고 나서 몹시도 낮이 익은 한 젊은이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몇 해전 선교사로 해외에 있을 때 나를 만난 일이 있다고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저 인사를 하고 싶어서 끝날 무렵에 왔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인사를 주고 받으며 옛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그 젊은이의 신앙에 관해서 물었고 그는 아직도 미혼으로 대학에 적을 두고 있으며 지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다고 했더니 일순에 그의 눈에서 광채가 사라지고 어두운 그늘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온통 낙담의 빛을 띄운채 그는, “저는 지금은 활동 회원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와는 영 다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간증으로 정리했던 것들이 이제는 압담한 그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이제 불분명 합니다. 저의 노력과 기쁨은 아마 헛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청년을 찬찬히 쳐다 보면서 몇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자네

는 여가에 뭘 하지? 무슨 책을 읽나? 기도는 얼마나 하나? 대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지? 사귀는 친구는?”

그의 대답은 내가 예견한 대로였습니다. 그는 움켜 잡았던 쇠막대를 놓쳤습니다. 그는 비회원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재 이외에 그는 성경 비평론이나 무신론자의 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의 전주는 온통 타버렸고 그의 전선은 형편없이 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교사를 끝낸 후 신약을 몇 번이나 읽었나?” “한번도 안 읽었습니다.”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경은 몇 번이나 읽었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다.” “경전은 몇 장 몇 절이나 읽었나?” 그는 단 한번도 경전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는 지극히 부정적인 이데올로기 신앙을 저해하는 책자를 탐독하면서 미소하지 못하는 이유를 궁급히 여겼습니다.

단 한번도 다시는 기도를 시도하지 않으면서 왜 자기가 소외되고 있고 험한 세상에 외롭게 지내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오래동안 그는 주님의 성찬을 듣지 않았고 그의 영적인 자세가 허물어 진것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십일조는 한푼도 안 바쳤고 그러면서도 왜 하늘의 창이 자기에게만은 굳게 닫힌채 냉담한지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많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는 그러한 좌절된 신앙과 실패와 외로움과 황량함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때 본 그 알젠틴의 불탄 초원과 불에 탄 전주

와 엉망으로 뒤엎킨 전선을 생각했습니다.

생활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초가 불에 탄 것입니다.

정신적인 확신의 침체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그저 내게만 주시오 라는 식의 고용인들의 성품은 고매하지 못합니다. “내 몫이 얼마지요?” “급료 인상은요?”라고 하면서 더 많은 휴일과 더 적은 근무시간으로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없는 고용주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돈도 너무 많고 그밖의 것도 너무 많습니다. 도 대체 물질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온통 물질이 인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우리는 너무 “물질”에 집착하여 우선 순위를 그릇으로 돌립니다.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 하고 특히 죄를 짓고도 태연한 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완전히 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저들의 전선은 모두 끊어진 것입니다. 많은 젊은 부부가 기도를 잃고 대화의 전선이 뒤흔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묻는 처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에 임하시는지요? 언제 기도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간구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크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음이라”(열왕기상 18:17-18)

여기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제사들과 선지자 엘리야 간의 정리되지 못하는 대화의 모습의 사진이 가벨산을 무대로 선명하게 펼쳐 집니다. 사악함이 창궐하여 주는 하늘을 닫고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 지니라...”(열왕기상 18:21)

드디어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 앞에 돌과 나무와 쇠붙이로 만든 신은 무기력한 신이라는 사실은 입증해야 하는 때가 이르렀다. 450여명이나 되는 바알신의 제사들은 제물을 태우지 못했으나 주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와 준비된 제물을 태웠고 일부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을 재무장 시켰으며 구름이 몰려와 고대하던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약화된 이스라엘이 새로운 전주를 강화한 것입니다. 끊어진 전선을 갈고 대화와 교통의 관계를 재건한 것입니다.

서부에서 온 젊은 부부가 내게 슬픔에 싸인 절을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각기 저들의 어떤 불실실에서 비롯된 그런 혼란에 싸인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고 비통한 결말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전말은 대개가 비슷

합니다. 이 젊은 부부는 서로에게 성실치를 못했고 대화가 원만치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비밀스런 모임이 뒤 따랐고 서로 상대를 속이는 일이 있게 되었고 마침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탈선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이 모두 교회 활동을 등한히 했고 결과적으로 교회 참여가 미진했습니다. 이들은 사회 사교 구름에 가담했고 자기들처럼 영적으로 형편없는 무리와 어울린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겨주었으며 십일조의 법은 점점 지키기에 벅찼습니다.

가정의 밤을 갖기엔 너무 바빠고 가족 기도도 등한히 정리되었으며 커다란 유혹이 닥칠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목초는 불에 탄 것이며 전주는 불 탔고 엉망으로 헝클어진 전선 덩이가 공중에서 춤을 추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교통의 수단이 마비되면 조만 간에 죄의 방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현재 혼란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인이 사탄에게 복종한 이래 이 세상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상이 완전한 상태로 죄를 용납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를 외쳐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여러 곳에서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또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도록 경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헝클어진 교통의 전선을 수리하며 맡겨진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우리 주, 구세주와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 하지 말라”

남을 존중하는 일이 중요함을 배우고 험담과 악담을 삼가한다.

며칠 전 이웃 사람 한 분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소리를 지나치가 우연히 듣고 언젠가 들었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당신의 훌륭한 면을 잘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그런 태도로 대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지겠습니까?”



엔 엘튼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이 보좌

사람들이 자기 이웃이나 친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저들의 좀 특이한 면이나 약점을 비판하는 일은 이제 아주 평범한 일로들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정도의 일이 아주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의 특이한 개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는 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이러한 젊은이들이 점점 자라서 각 여러 분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전혀 정당하지 못한 비판과 사실 무근한 비평의 좋은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교사로서의 일을 시작했을 때의 맥케이 자매님, 그러니까 맥케이 대관장님의 부인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분을 소개시키면서 한 소년을 가리키며 그가 형편없는 말썽꾸러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년의 부끄러워진 마음을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혹시 그 소년이

자기의 그러한 불명예스런 평판에 아주 자포자기하지 않을까를 염려한 맥케이 자매는 짧은 메모를 적어 그 소년의 책상 앞을 지나갈 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굴, 교장 선생님의 그런 판단에는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 학교에서 이 교실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만드는 데 크게 도와 줄 것을 안다.” 그후 엘튼은 학교에서만 모범생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중요한 사회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들려야겠습니다. 그가 살던 지역 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명성을 얻고 살던 어떤 분이 우연히 마음을 상하게 되어 과거에는 그토록 애착과 정성과 수고로 돌보던 그 사회와 단절한 채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그를 머리가 돌았느니, 형

편없는 친구라느니, 반 사회아라느니 하는 식으로 들먹였고 그저 기회만 있으면 험담했습니다. 그후 진찰에서 그는 그전에 참여하던 그 모든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아주 심한 소외증에 걸렸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불의한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한 두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직책을 맡아 줄 역원이 필요한 지부장은 비활동 회원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발견해 놓고는 “아나, 이 친구는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직책을 맡아 주지도 않을텐데”라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리하여 그는 시도해 보지도 않으며 역원의 대상으로 일단 고려되었던 회원은 몇 년 더 비활동 상태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부에 지부장이 바뀝니다. 그 지부장은 직책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면서 일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미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직책을 받아 들이던가 거부할 수 있는 결정권을 일단 주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도대체 우리 지부장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마 혼자서 만사를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거야”라

고 가족들에게 떠들어 대는 사람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무근한 것을 가지고 지부장을 비판하는 것이며 지부장의 입장이나 형편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 비판이 전혀 불의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릇된 편견을 심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자녀들은 지부장에게 대한 존경심을 잃고 결국 신앙심을 약화되고 맙니다.

이러한 예로 보아 비판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옹호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 2000년 전에 불의한 비판에 끼어 들려는 인간의 심리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태복음 7:1-5)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전혀 힘이 없을 때가 아니면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왕을 택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무엘의 경험을 상고해 본다면 인간은 남을 비판하거나 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새로운 왕을 택하도록 하셨을

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여덟을 둔 이세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앞으로 지나칠 때 그를 알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장자인 엘리압이 다가왔을 때 사무엘은 그가 택함을 받은 자로 알았으나 주님께서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바른 식별법 열쇠를 알려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그리하여 아들 일곱이 사무엘의 앞을 지나갔지만 모두 거절 당했고 마지막으로 막내인 다윗이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승인하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남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추측한다고는 하지만 그 확실한 동기를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로 그 동기가 순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목표나 소망을 잘 알지 않고서는 그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나 기회나 처한 처지에 있어서 사람은 각각 서로 다른 조건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 위에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맨 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여 나가면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위치한 그 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공이나 실패에 얼마나 접근했느냐 보다 그 향하는 방향

이 어디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감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자기 눈에 뜨이는 것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마음에 품은 것이나 의도하는 바를 비판할 수는 없고 더구나 이웃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더욱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안되는데, 흔히 남의 부정직함이나, 꾸미고 있는 음모나, 허망함과 같은 파오나 약점을 꼬집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가장 못된 면만이 평가되어 노출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의 뉴스 미디어에 있어서도 공격의 대상이 된 사람의 가장 여의치 못한 면이 이야기의 초점이 되곤 합니다. 그 사람의 훌륭한 아흔 아홉 가지 사항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의 파오, 그것이 강조되고 과장되어 온 세상에 광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욕적인 글이나 이야기를 듣고 받아 들이고 반복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버릇처럼, “뭐 아니면 굴뚝에 연기가 날라구” 라고 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시샘이 많은 어떤 사람이 험담의 불씨를 붙인 위에도 사실 무근한 연기를 자꾸만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가까운 친구가 비행에 가담했다는 풍문이 나돌 때라도 그 사실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그 풍문을 받아 들이고 들은 대로 떠들어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 전해진 이야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친구가 파멸의 구렁에 빠지게 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일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이 비판의 문제가 개입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좀 더 두고 확실한 사항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 보아야 하니까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판하는 소리를 감싸 줌으로써 우리는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가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게 되기를 열망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그토록 이웃이나 친구가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때 쉽게 그들을 정죄하려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개인적인 사감과 우월감 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남의 감추어진 약점을 캐내려 하기 보다는 저들의 장점을 보아 주도록 노력합시다. 꼭 남의 약점을 찾아 내겠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쉽게 남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감싸주려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려 하고 그것을 강조하려 할 때에 가정에는 파탄이 일게 되고 가족간의 유대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가 정도에서 벗어나 있으면 있을 수록 자신의 향상 발전에 노력하기 보다는 남의 약점이나 과오에 열을 올리게 되며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교회의 교리를 비난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며 복음의 가르침대로 따라 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가장 분명한 예를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임무 수행에 다소 게으르게 된 나머지 아벨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에 화가 났고 그의 그러한 무분별한 질투와 시기가 마침내는 그의 동생을 살해하게 만듭니다. 만일 가인이 동생의 처지를 이해하여 축하해 주고 존경해 주며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고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와 언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의로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며 다른 사람을 공박하는 일이나 잘못 전해지는 풍문을 퍼뜨리는 것을 절대로 삼가도록 합시다.

풍문이란 가장 못된 형태의 비난이라고 봅니다. 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살인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간교한 혀는 한 사람의 명예와 장래를 파멸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파괴하려는 공격적인 시도와 간계와 반 거짓말로 개인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마치 거대한 딱딱 나무의 생명을 앗으며 그 존재를 종식시키게 하는 무서운 곤충의 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독소는 지극히 은밀하고 쉽게 방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균의 공격을 피하는 것보다는 코끼리를 피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우리가 이제까지 수없이 들어온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서 구현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 12) 이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표준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러한 표준으로 남

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그리스도 앞에 끌려왔을 때 그리스도는 고발자들의 부정당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평가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표준과는 전혀 다른 표준에 의하여 그 여인이 정죄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대개는 많은 잘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후에 허리를 굽혀 모래 위에 글을 쓰면서,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요 8: 7, 10)

우리가 예수님께 정죄를 요청하며 사람을 때려 갔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며 허리를 굽혀 모래 위에 글을 쓰고 계시다면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끄러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리를 피하셨습니까?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 우리가 “너희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 39)고 하신 두 번째로 큰 계명을 좇아 살며 우리들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주변에는 이웃을 헐뜯는 소리나 거짓 증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란 말씀이 있고 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 12, 14—15)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용서의 표본입니다. 그 앞에 간음 죄로 끌려온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

라”(요 8 : 11)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 기도하실 때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 : 34)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개인의 사십이나 우월감이나 불안한 심정을 극복하고 사회 복지를 위하여 더욱 기여하며 남의 행복에 힘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행복해 질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판사도 있어야 하고 교회 회원의 일을 다스리는 교회의 판사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재판하고 다스린다는 무게고 힘든 책임을 지며 맡은 소명에 충실하여 나라의 법과 교회의 법에 좇아 의롭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같이 복음 원리에 따르며, 높은 원리에 좇아 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정계의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매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여하한 비난이나 질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까.

남을 짊어 내리고 혈 뚫음으로 해서 얻는 것도 없으며 발전하거나 우리의 성품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의석상에서 격렬했던 비난과 험담으로 해서 가까운 친구 간의 우정이 깨지게 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우리는 젊은이로 하여금 개인적인 신망을 잃게 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지도자 내지는 정부 자체를 경멸하게 합니다.

우리는 특히 부모로서 이러한 일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언행의 하나 하나가 우리들의 자녀의 태도와 마음 가짐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장차 다른 사람들과 살아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 교육을 받는 곳은 가정이며 가정에서 덕과 사랑과 관용과 인자스러움을 배웁니다. 이러한 교훈은 부모가 자녀에게 인종이나 종교나 사회적인 지위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를 공평하게 대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친다면 훌륭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가 관용으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었던 사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의 주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과 친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나의 결양을 다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무에게도 반감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거부의 태도를 혹 누구에게 보였다면 이를 관대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 40)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느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특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을 전하기를 갈망하며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하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유일한 참 독생자이시고 그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부활 하셨고 이로써 온 인류가 불사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또한 주는 우리에게 주의 면전에서 돌아가 영생을 구가하도록 복음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

었고 오늘날 이 땅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아울러 물론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옛 미 대륙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기록한 온전한 복음의 기록임을 증거합니다. 물론경은 계명과 계시의 영으로 기록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온 나라에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시키는 기록입니다.

나는 또한 이 교회의 대관장이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그 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제 내가 그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두를 알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모두 물론경을 읽고 그곳에 약속된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들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 10 : 4—5)

이 약속과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전합니다. 아멘. ㉠

성도의 벗을

많이 읽어 주세요!

히버 제이 그랜트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

레온 알 하트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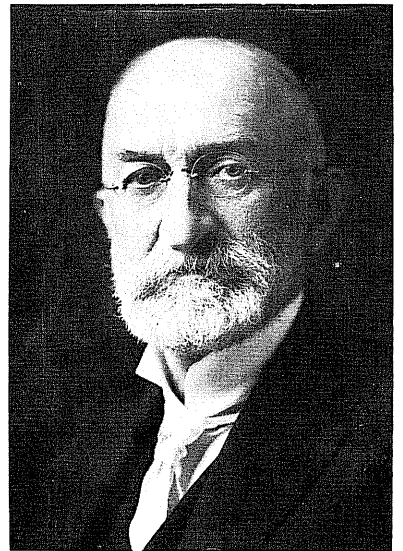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 가는 데 있어서 핑계없는 무덤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 누구는 전쟁에 나갈 수 없고, 누구는 일을 하지 못하며 누구는 책임을 전가한다. 그런가 하면 자기는 너무 피곤하다던지, 아프거나, 바쁘거나, 가난하다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인다. 또 세상에는 자기의 가치와 재능은 더 큰 일에나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모두 남에게 일감을 물리는 사람도 있고 사랑과 평화, 인도주의 등에 관하여 입으로만 떠들어 대는 사람도 허다 하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것이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교회의 제 칠대 대관장이시었다. 그분은 일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만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 일이 쉽지 않을 때라도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곤 했다. 그는 오직 열의로써 불가능의 벽에 도전했고 불같은 의욕으로 압담하게 보이는 일에 임하여 싸웠다. 자기에게 어떤 일을 수행해 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연습하고 기도하였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변명을 모르는 분이였다. 그것이 재정적인 위기에서 교회를 구하는 일이거나 혹은 찬송가를 바른 음정으로 부르는 일이거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성장해 온 환경은 이러하였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과(그분의 자택에서 어린 그랜트는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레이철 아이빈스 그랜트(그랜트의 미망인 모친)는 서로 공통되는 점을 갖고 있었다. 이분들은 모두 자기들이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위한 자기 절제와 훈련의 가치를 알고 제쳤다. 어린 그랜트는 이러한 태도를 받아 들인 다음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다.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마음으로 한 번 할 것을 결정한 일을 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이다. 그는 1)에머슨의 글을 자주 인용하였다: "우리가 이행하기로 단단히 결심한 일은 점차로 그것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행해 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르치는 바를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했다.

1) 에머슨, 랄프 왈도(1803-1882) 미국 수필가, 철학자, 시인

그랜트 대관장의 모습



그는 자기가 야구팀의 우수 선수로 발탁되기 위하여 공 던지는 연습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와 자기의 형편없는 글씨 재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 주었다. 결국 그의 글씨는 당대의 명필이라는 평을 얻었으니 말이다. 그는 또한 단상에서 성도들과 교회의 찬송가를 함께 부르는 것이 아주 훌륭한 예배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전하였다. 그는 또 매일 찬송가를 연습하여 어떤 찬송가라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부를 수 있도록

그랜트 대관장은 언제나 자신이 중요한 부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는 사람처럼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1901년 9월 1일 그랜트 장로와 세명의 선교사가 요꼬하마가 내려 다 보이는 등산에 올라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땅으로 일본을 헌납했다.



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우리들의 현세의 삶의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삶의 건축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시지 않은 계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그 힘을 온전히 개발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셨던 것이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1856년 11월 22일 제디다이아 엠 그랜트와 라첼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그랜트는 영 대관장의 보좌였으며 어린 그랜트가 아홉 살 때에 별세하셨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그랜트가 자라서 그의 아버지 보다는 훌륭한 사도가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의 어머니는 늘 “바른 행동”을 하고 “순종심”을 가져서 그에게 주어진 이러한 축복이 성취되도록 하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록 배우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분의 말씀의 주제 가운데 자주 사용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생활에 필요한 어떤 재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도록 격려하시는 뜻의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의 구원과 승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자기 내



그랜트 대관장의 서류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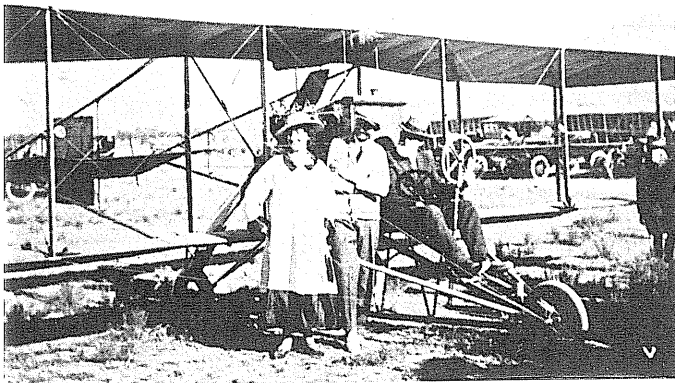
이 아름답게 조각된 책상을 그랜트 대관장은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그의 생애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간이었고 교회의 대관장이요 선지자로서 그가 봉사하던 기간은 그의 과감한 지도력과 능력이 요구되던 때였다. 주는 허비가 온갖 것을 극복하며 복음 원리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께 의존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준비시키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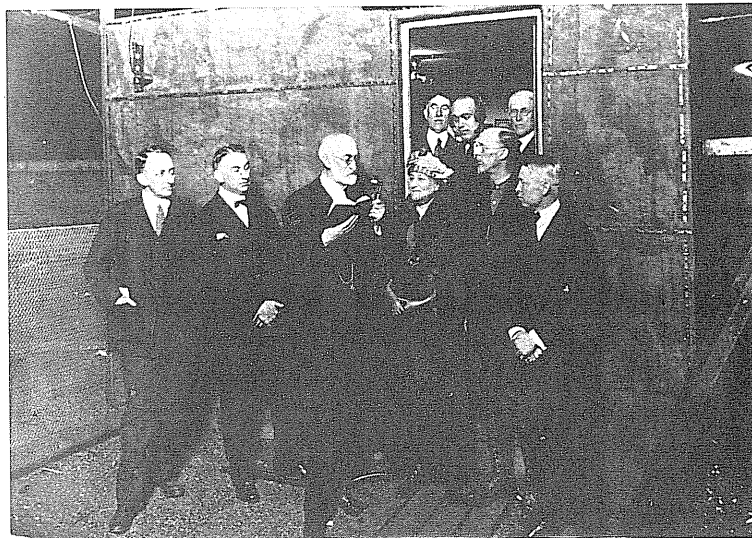
이러한 성품은 두 개의 세계 전쟁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데 필요한 성품이었으니, 그 전쟁이란 바로 재정적인 시련과 온 세계에 개종자가 늘어 남으로써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 따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평생을 두고 가족과 긴밀한 유대를 가졌다. 그는 그의 자녀와 가까웠으며 손자들과도 가까웠고 그밖에도 온 가족과 가까웠다. 집을 떠나서 살고 있는 딸 한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빠는 아주 다정하면서도 정기적인 글을 내게 보내 주셨어요. 아마 제가 그 글에 아빠만한 성의로 다 답장을 했다면 거의 이 주에 한 번씩은 편지를 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 편지의 서두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두 시 (때로는 세 시) 다. 잠이 오질 않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내 딸에게 몇 자 적는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후 그 편지를 받지 못하는 저의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청년 시절에 히버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헌금을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 모임이 끝난 후 히버는 감독에게 50불을 전했다. 감독은 그중에서 45불을 돌려주며 히버의 몫은 5불이라고 하셨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자기의 50불을 전부 전하면서 이렇게



그랜트 대관장이 그 당시 인간이 이룬 기적인 나르는 기계의 명예석에 앉아 있다.



처음에는 사치품이던 라디오가 그랜트 대관장 재임 동안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사진은 1922년 솔트 레이크의 케이·젯드·엔 방송국에서 첫 방송을 보내는 모습이다. 사진 뒷줄에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모습이 보인다.

말했다. “울리 감독님, 오늘 감독님은 주님께서서 여러 배로 보상하신다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과부이십니다. 지금 200불이 필요하시거든요.” 이에 감독은 “히버군이 45불을 내가 마저 받으면 원하는 200불이 빨리 생기게 되리라고 믿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알겠네” 하시면서 받으셨습니다. 히버가 모임을 끝내고 돌아가면서 묘안을 생각해 냈다. 그는 그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사업 결산을 마쳐 주는 전보를 보냈다. 히버 제이 그랜트의 할당금은 218불 50전이였다. 다음날 그는 감독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감독님, 제가 50불을 현금한 후에 이백 십 팔 불 오십 전을 벌었습니다.

십일조로 이십 일 불 팔십 오 전을 내야 합니다. 이십 일 불 팔십 오 전에서 십 팔 불 오십 전을 뺀 차액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분명히 네 배로 갚으시면서 제가 십일조로 내야 하는 액수는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에 한번 커다란 경제적 시련에 부딪혔던 그랜트 대관장님은,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91,000불이 좀 모잘 뿐이야”라고 하셨다.

그는 일본에 선교부를 조직하여 관리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이를 위한 준비와 정리 기간으로 일 년을 약속받았다.

그의 부름이 전해진 모임이 끝나고 나서 동료 사도 한 사람이 만약 대관장님께서 히버 제이 그랜트의 재정적인 곤경을 아셨던들 그러한 부름을 전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랜트 대관장은 이 이야기에 동의했다. 그 순간 그랜트 대관장님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 버렸다. 그리고 매일 열심으로 기도했다. “오늘도 제가 저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년 내에 그는 그의 채무를 청산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필요로 할 자금도 마련한 것이다.

히버 제이 그랜트가 완속해 지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신앙도 완속해

졌다. 그의 아내가 심한 병으로 남자 히버 제이 그랜트는 자녀를 모두 병원으로 불렀다. 모친이 사경을 헤멘다고 설명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딸들이 그랜트 대관장에게 어머니를 죽도록 버려두지 말라고 애원을 했다. 그녀는 신권의 행사를 시도해 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그녀와 다른 자녀들은 방을 나갔고 그랜트 대관장은 그의 아내의 머리 밑에 무릎을 꿇었다. 그 기도에 관하여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주님께 주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심을 알게 기쁨과 슬픔을 다스리시고 번영과 패망을 지시하시는 줄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아내가 죽게 된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게 아내의 죽음을 눈으로 지켜보는 힘이 나약함을 말씀드렸고 그녀의 죽음이 나의 자녀에게 복음의 의식을 더욱 믿는 신앙으로 연결되게 해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딸 루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간증을 갖도록 해주시고 그녀의 모친의 임종도 그렇다고 느끼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짧은 몇 시간이 지난 후 나의 아내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방으로 불러 들인 다음 엄마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어린 아들 히버가 슬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루사가 그를 끌어 안고 위로해 주며 울음을 그치라고 타일렸습니다. '너의 모친의 죽음도 주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주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루사는 기도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몰랐으며 이러한 루사의 태도는 나의 기도의 직접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나는 이 일 이후로 이 응답에 관하여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루사는 그후 성장해서 청년 상향회 총본부 회장이 되었고 그랜트 대관장님은 자주 딸에게 신전에서 인봉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연차 대회에 모인 젊은이 앞에서 간증하도록 지시하셨다. 그랜트 대관장은 그가 결혼했을 때 솔트레이크 신전이 완공되지 않았던 사실을 돌이켜 보며 우셨다. 친구들은 신전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고했으나 그는 단호히(당시 그의 단호한 결심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 그의 아내를 성 조지 신전으로 인도하여 먼저 인봉 의식을 가졌다.

철저한 완전주의였던 히버 제이 그랜트는 그러나 남의 불완전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빨리 배웠다. 그는 그가 이 진리를 배우게 된 이야기를 해 주셨다. 한번은 그가 교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마침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야기 중에 문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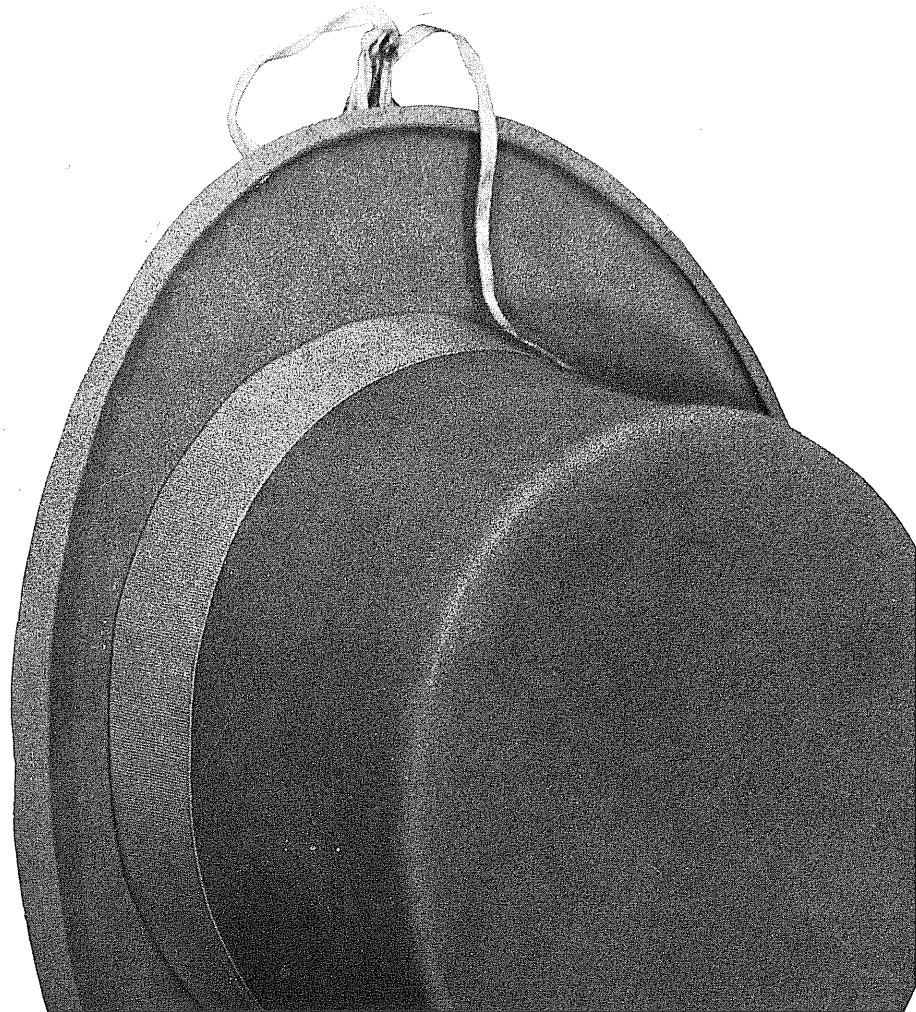
히버는 그의 어순이 틀렸다는 사실

을 증거할 수 있는 책자를 얼마든지 학교에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또 잘못된 이야기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영적인 분위기에 빠져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요셉 스미스의 성스러운 업적과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에 관하여 간증을 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 "그후로 여러 해가 지났지요. 나는 그후로 이야기하는 분의 틀린 문법이나 발음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언어의 일편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엇보다도 나를 감동시킨 것은 바로

그 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 전해지는 그 영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어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를 전해 준 그 많은 분들 중에는 이토록 극심한 경제 전쟁의 현장에서 매력적인 의복을 사 입을 만한 균등한 기회를 가졌던 분이 한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나는 나의 결심을 굳혔으며 오직 이야기하는 사람의 영으로 판단하였다는 결심을 지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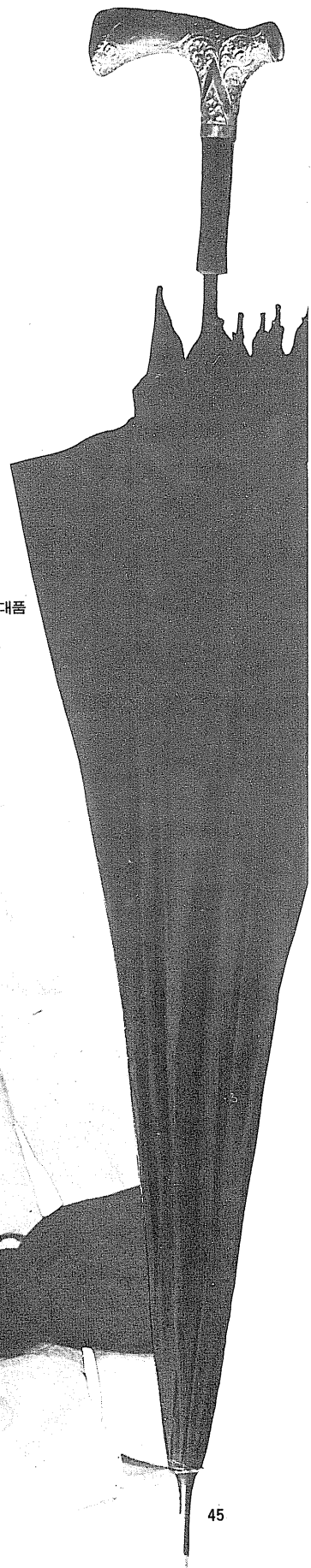
히버 제이 그랜트는 이런 분으로서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더 배우고 나서는 태도를 바꾸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었고 그 값이 얼마가 되던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달성하는 분이었다



히버 제이 그랜트 약력 (1856-1945)

| 연도 | 나이 | 사건 |
|--------------|-------|---|
| 1856년 11월22일 | | 솔트 레이크 시에서 탄생 |
| 1866년 | 9 | 대관장단의 2보좌, 솔트 레이크시 초대 시장이던 부친 제디아이어 엠 그랜트의 사망 |
| 1875년 | 19 | 청년 상향회의 회장단 역임 |
| 1877년 | 21 | 루시 스트링엄과 결혼 |
| 1880년 | 24 | 청년 상향회 총본부 서기 역임. 톨스 스테이크의 부장 역임 |
| 1882년 | 26 | 사도로 성임됨 |
| 1897년 | 41 | 총본부 청년 상향회 회장단. 임푸르브먼트 이라의 사업 부장으로 크게 활약함 |
| 1901-03 | 45-47 | 일본 선교부의 조직 관리 |
| 1904-06 | 48-50 | 영국 및 구라파 선교부장 |
| 1918년 | 62 |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됨 |
| 1919년 | 63 | 하와이 신전 헌납 |
| 1923년 | 67 | 캐나다 신전 헌납 |
| 1927년 | 71 | 아리조나 신전 헌납 |
| 1936년 | 80 | 교회 안전 계획(추후 복지 계획이 됨)의 시작 |
| 1945년 5월14일 | 89 | 별세 |

그랜트 대관관의 휴대품



그랜트 대관장의 자녀들. 왼쪽부터 에디스, 후로, 렌스, 라첼, 루시, 안나와 아버지 무릎에 앉은 히버 2세, 1882년 아이다호주 소다 스프링스에서.

새해 새 신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참을 발견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침례를 받고 입교하신 우리 교회 회원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에 지난해는 먹구름과 같은 비판과 핍박의 소리들은 세계적인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타임지나, 국내에서는 각주간지와 신문과 잡지들, 그리고 방송망을 통한 타교 목사들의 신랄하고 무근한 위증들은 우리의 영혼 위생에 큰 타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가 전도사업에서 당하신 그 모욕과 배반, 치욕 그리고 그 핍박을 생각하면 우리의 것은 아무 것도 아님을 느낄 때 참 진리를 사랑하고 지키고 살아가며는 얼마나 큰 수난이 닥친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박아내려 아무리 큰 비바람의 폭풍이 내리쳐도 견뎌내며, 다음날의 맑고 높은 하늘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자세는 새해 새 신념으로 출발하여 의에 용감한 자가 되고, 회복된 진리를 지킴에 강한 간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16세기 중엽의 영국 스코트랜드의 종교 개혁가 요한 낙쓰의 행적을 읽어보면, 그는 얼마나 강한 신념의 사람이었나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종교 개혁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쓰더러 말하기를 “온 세상이 다 당신의 종교 개혁 운동을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에 낙쓰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러면 나는 온 세계를 반대하노라” 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신념의 사람이란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모든 무서움을 이기며, 대항해 가는 것입니다. 낙쓰의 참과 정의를 위한 부동의 신념을 크게 배울 바가 있다고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 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념이 명시되어 있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꽃대를 향하여,” “오직 한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는 본문의 말씀은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훌륭한 신념에 대한 간증과 교훈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일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결심은 한가지 일을 얼마동안 하다가 집어 치우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일을 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즉 그것은 기록된 바와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잘못한 것을 회개하고는)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꽃대를 향하여(신앙적 노력으로 보다 큰 영광을 목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일입니다.

바울은 환란 가운데서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잘 달렸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때려도 죽음의 시련 앞에서, “오직 한 일을 위한 부름의 상 앞에서” 용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 새 신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진리와 교리위에 우리 말일성도의 생활 방식을 강하게 신념화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식사 때마다 음식을 축복하며, 매일마다 개인적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울리며, 금식을 하고 그 기쁨을 헌납하며, 매일 15분 이상씩 경전을 봉독하고 십일조의 법을 실천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데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위하여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의 실천적 신념을 가지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의 부름을 큰 상과 특권으로 하여 끝까지 보다 높은 영광의 꽃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새해 새 신념, 새 성도가 됩시다. ■

환란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간증의 형제,

박 재암 부선교부장

